

송현이와 옥선의 모습, 선생은 앉아 있는 뒷모습만 (중간먼거리)		
그들은 어떻게 된거야 어젠 시험도 안보고 종례시간에도 빠졌고 어딜 갔었어?	학교 다니기 싫으나 대학가기 싫어! 니들 멋대로 수업 빠지고 시험도 안봐!	
선생 앞 모습, 송현 옥선 뒷모습(중간먼거리)	선생 몹시 화가 난 장면(중간거리)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싫다는 송현이를 억지로 데리고 그림 그리러 갔었어요	모든 것은 제 잘못이에요 송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옥선이 고개 숙이고 (먼거리-배경없이 약간 어둡게)	옥선이 고개 숙이고 (중간거리 - 배경없이 약간 어둡게)	옥선이 고개 숙인 모습 (가까운거리- 약간 어둡고 배경없이)

송현이 당황하는 모습 (가까운거리 - 배경없이 어둡게)	선생 어처구니 없는 표정(가까운거리)
넌 항상 말썽이야 공부도 못하는게 뭐! 그림 그리러가!	그것도 혼자 아니고 송현이까지 꼬셔서
선생님은 화난 얼굴로, 송현과 옥선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송현이는 반성문 제출하고 옥선이 너는 반성문 제출하고 내일 부모님 모셔와	때 -르 -르 - 응 수업 들어가!
옥선이 송현이 선생님께 인사	옥선과 송현이 교무실을 나가는 모습 (먼거리)

여기서는 We가 주어니까 수동태로 만들려면...	
영어 수업시간- 뒷쪽에서 칠판 쪽이 보이는 장면	
송현이 근처(약간 위에서 본 각도)	너 이년아! 요새 왜 공부 안하니 송현이 엄마에게 꾸중듣는 회상장면
너 그러다가 대학 떨어지면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회상장면	
네 아빠는 창피해서 직장에 어떻게 나가니. 나는 재수하는 꼬라지 절대로 못본다. 그 따위로 공부 안해서 대학 떨어지면 어디 멀리 가서 뉘져 버려! 회상장면	

만약에 ... 박 옥 선	
송현이 회상에서 현실로	선생님이 옥선이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장면
너 지금 보던 책 갖고 나와!	
급우들의 시선이 옥선에게 쏠리고- 선생은 객관적인 모습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소설?
옥선이 고개를 숙이고 책 갖고 나간다 (배경 어둡게)	선생님은 책 제목을 읽고 옥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중간거리)
너는 어제는 송현이 꼬셔 그림 그리러 가더니 오늘은 수업시간에 소설이나 봐! 씩아지 없는 년! 교무실에 가서 무릎꿇고 앉아 있어 선생 책으로 옥선이 따귀를 후려 갈긴다	

어느 주택가의 모습		
송현이의 집 외부 모습	<p>따르르릉 따르르릉</p> <p>거실의 전화벨이 울린다</p>	
여보세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송현이가!	
송현이 엄마 전화 받는다		
(송현이 엄마의	얼굴 표정이 어둡게 변하는 약간 어둡게	장면) 어둡게

송현이 엄마 전화를 끊는다(조금 어둡게)	엄마 송현이 방으로 (중간면거리- 조금 어둡게)
방문 여는 송현이 엄마 (송현이 방쪽에서 엄마 얼굴 보이게 - 중간거리, 약간 올려다본 각도)	<p>엄마! 무슨 전화...</p> <p>송현이 그림 그리다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란다 (중간거리)</p>
송현이 엄마 그림을 뺏어 버린다	<p>미친년! 영어 단어 하나도 외우기 바쁜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이 처 죽일년!</p> <p>송현이 엄마 그림을 들고 있고 송현이는 겁에 질린 표정</p>
<p>너 학교에서 수업 빼먹고 시험도 안보고 그림 그리러 갔었다며! 이 미친년 누구 죽는꼴 몰라구!</p> <p>송현이 엄마 그림을 박박 찢으며 - 이때 벨이 울린다</p>	<p>딩 -동-딩동</p>

누구세요?	저 옥선인데요 송현이 있어요	
송현이 엄마 인터폰으로 (중간거리)	대문에서 (중간거리)	송현이 엄마 분노하는 표정 (가까운거리)
송현이 없어. 있어도 안돼! 너 학교에서 송현이 꼬셔서 그림 그리러 갔었다며		망칠테면 너 인생이나 망치지 왜 송현이는 꼬드끼고 지랄이야
송현이 엄마 화난 표정으로 (중간거리)		
(송현이 당황하는	표정부터 울면서 뛰어 나가는 - 배경없이	모습을 점층적으로)
옥선이 고개 숙이고	돌아가는 뒷모습 - 배경없이 점점 어둡고 먼거리로	

<p>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p> <p>산동네 판자촌</p>
<p>판자집 한 채</p>
<p>아파 누워있는 옥선이 엄마 옆에 옥선리와 옥현이가 앉아 있다(먼거리)</p>

내가 빨리 일어나야 할텐데
너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옥선이 엄마 옥선의 손을 잡고(중간먼거리 - 약간 어둡게)

내 걱정은 하지말고
엄마나 빨리 일어나세요

애비도 없는 것이

옥선이 엄마 돌아 누워 운다(중간거리)

송현이의 얼굴 (가까운거리)

송현이와 옥선이가 손잡고 걸어 온다, 판자촌 배경 (먼거리)

아까 우리집에서 속상했지
선생님한테 맞은것 아프지 않니?

옥선은 뺨을 만진다(중간거리)

옥선의 멍멍한 표정
(중간거리)

나는 공부 하는게 싫은게 아니고
공부할 필요를 전혀 못느껴
대학 갈것도 아닌데 내신성적이
무슨 소용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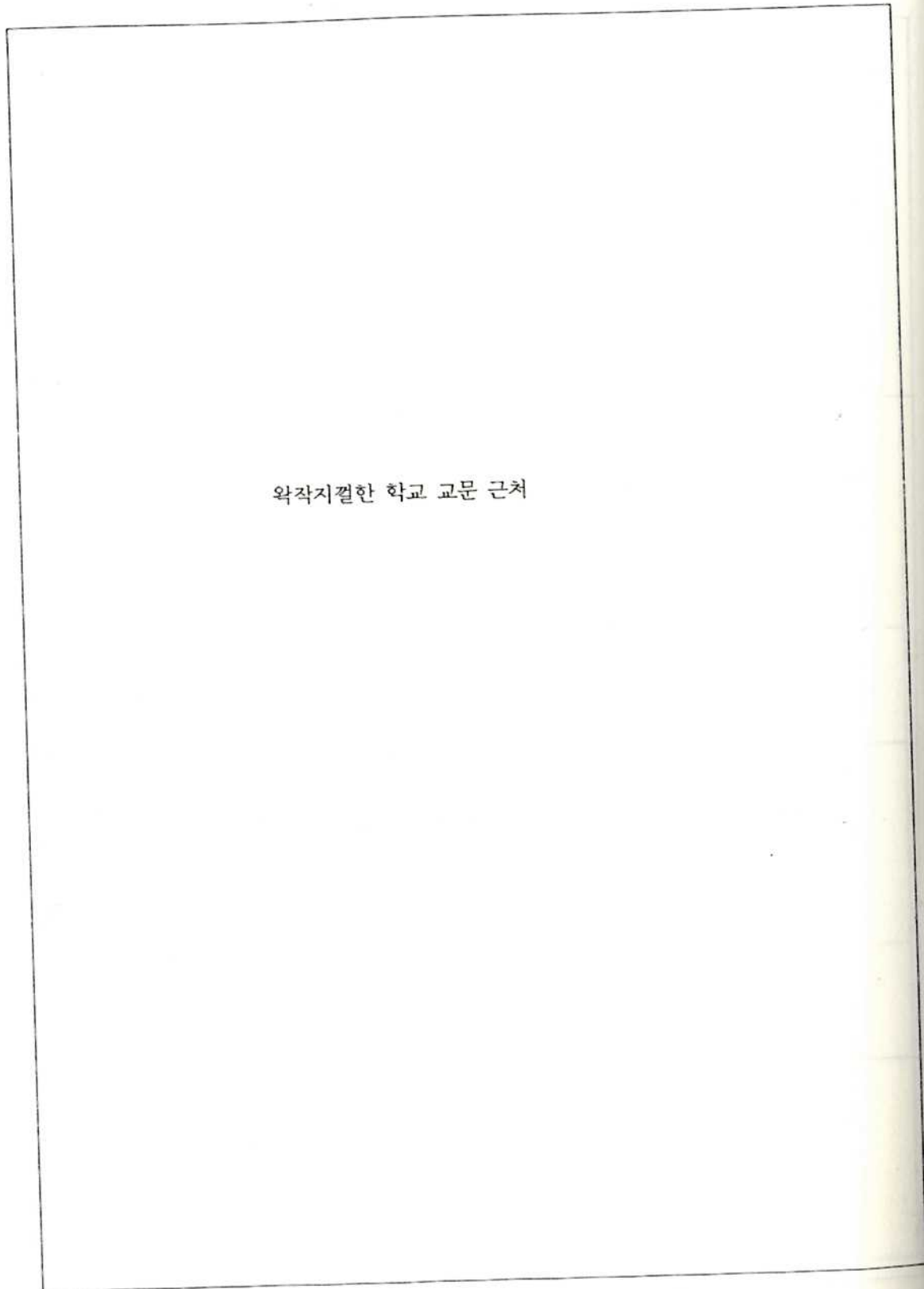
옥선이 송현이 손잡고(중간거리)

내가 등수 하나 올라가면
다른 아이가 등수하나
떨어지는걸

옆 모습 (중간먼거리)

차리리 꼴등을 해서 다른 애들 내신성적이나 올라가게 하는게 남지			
옥선이 옆 모습(가까운거리)		송현이 놀라는 표정(가까운거리)	
큰 길에 차들이 다닌다			
나 이제 엄마 때문에 들어가 봐야돼	송현아! 잘가	옥선아! 안녕	
		송현이 버스 쪽으로 가며(먼거리)	
옥선이가 송현이 버스 타는걸 보고 있다(조금 어둡게)		옥선이 표정(가까운거리)	

너무나도 생각이 깊은 애다 내가 서있는 자리가 부끄러울만치	
송현이 걸어가는 뒷 모습 (주택가 중간거리)	
옥선은 정말 자유스럽다 마치 창공을 날으는 나비같이 그러나 남의 인생을 살아 가는 것 같은 난... 껍대기! 박제....	
송현이 걸어가는 뒷 모습 (주택가 먼거리), 중간 어두움	
모든 것이 다 미워진다 엄마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송현이 아주먼거리, 어두움	
어둠 - 영상적 처리	



확각지필한 학교 교문 근처

<p>송현이 등교하는 모습 (먼거리 -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 각도)</p>	<p>송현이 교문에서 학교 쪽으로 (먼거리 - 옆에서 본 장면)</p>
<p>학교 게시판에 모여 수근거리는 학생들 송현이의 모습이 보인다</p>	<p>송현이 멈칫하며 놀란다 (중간먼거리)</p>
<p>송현이 얼굴(가까운거리)</p>	<p style="text-align: center;">공 고</p> <p>아래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함</p> <p>성명 : 3학년 5반 박 옥선 사유 : 위의 사람은 학교 생활.....</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 학교장</p>

아냐! 그럴리가 없어!
옥션이가 왜

황급히 교실로 뛰어가는 송현 (중간거리)

드 - 르 - 음

송현이 교실문을 열며 (중간거리)

수근거리는 반 아이들

크게 실망하는 송현이 가방을 놓친다
(중간먼거리)

텅 비어 있는 옥션이 자리
(복수쫓점거리)

송현이 정신나간 사람처럼 옥션이 자리에
간다 (중간거리)

송현이 옥션이 자리에 앉는다(중간거리)

정신 나간 표정의 송현이 눈에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가까운거리, 복수초점거리)

(중간거리 - 중간 어둡게)

(먼거리 - 어둡게)

송현이 학교 옥상의 난간에 기대어 있다 (아주먼거리)

(먼거리)

옥상에 서있는 송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까운거리)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오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송현이의 눈에 자유롭게 나는 나비의 모습이 보인다

비바람 험상궂게 거쳐 간 추녀 밑
날개 찢어진 늙은 노랑 나비가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찢긴 나래의 맥이 풀려
그리운 꽃밭을 찾아 갈 수 없는 슬픔에
울고 있는 맨드라미 조차 소태 맛이다

자랑스러울손 화려한 춤 제주도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늙은 무너처럼 나비는 한숨진다

송현이 옥상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며
환상의 나비가 날아 오르는 장면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잎파리 푸르려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 있소

한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옥상에 빈 난간이 보이며 - 나비 한마리가 날아 오르는 장면

텅 빈 옥상의 모습(먼거리 - 어두운 배경)

옥상 위에 있는 유서 종이가 날린다

유서가 바람에 날라 간다

저희가 원하는 세상은요 !

저희가 원하는 세상은요
그렇게 큰 세상이 아니에요

험려하기도
아름답지도
예쁘지도 않아도 돼요

작은 소망
작은 사랑
작은 먼움이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저희가 원하는 세상은요
작은 감초라도
어루만져주는
사랑이 있는 세상에요

저희 세상엔
 '소원'라는 단어가 없어요
 '경쟁'도 '입시'도 '열등'도 없어요
 저런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사랑해요

저희 세상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 누구를 떼어뜨리거나
 문을 닫지 않아요

저희가 바라는 세상은요
 작은 사랑
 작은 소망
 작은 멀음이
 언제나 있는 곳이에요

[두임 들]

창작의 부담을 덜고 만화 시나리오의
 느낌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색의
 방법을 선택했다. 교육문제를 다룬 <사
 랑으로 크는 나무>라는 옴니버스 소설
 을 교재로 설정하고 각색한 작품들이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동일 주제하
 에 각색 및 창작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위기철씨의 <노동자 이야기주머니>에서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글을 각색한 작
 품을 선정했다.
 역시 회원들의 여러작품들이 있으나, 지
 면관계상 몇가지만 선정했다.

- * (시나리오) - <사랑으로 크는 나무> 각색
 - 오골계와 물마 ----- 백정숙 ----- 104~109
 - 꿀찌를 위하여 ----- 유미숙 ----- 110~116
 - 힘찬 발걸음 ----- 김지나 ----- 117~127
- * (시나리오) - <노동자 이야기주머니> 각색
 - 무노동 무임금 ----- 유미숙 ----- 128~132

※ 오골계와 물마 ※
(소설 사랑으로 크는 나무를 각색한 것임)

백 정 숙

#1 학교

(학교건물이 운동장과 함께 그려지고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벌떼같이 쏟아져 나온다. 한편 어느교실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싸움장면을 클로즈업 시킨다. 성만과 경호가 서로 치고박고 싸움을하고 다른 아이들은 주변에서 서로를 응원한다. 경호를 욕하는 말도 들린다 “야마, 가져간걸 빨리 내놔!”)

성 만; 야, 이새까! 가져갔으면 빨리 내놔야 될것아냐!
(서로 엉킨가운데 “물마 잘한다” “물마야, 밀어붙어!” 라는 소리도 들린다)

경 호; (역시 씩씩거리며) 누가 뭘 가져 갔다고 이 지랄이야!
이거 안놔?!

(아이들 중에 “경호야, 힘좀 써라!” 라고 응원도 한다)

성 만; (계속 먹살을 잡은채로)
어쭙! 도둑놈이 어디서 큰소리야, 너~맛좀봐라!
이새까! (경호를 한대 후려친다 돌이는 바닥을 뒹굴며)
(어수선한 가운데 교실 앞문으로 한 아이가 뛰어 들어오며 “담임은 다!” 소리에 아이들은 앞 다투어 각자 자리로뛰어든다)

#2 교무실

(담임의 책상앞에 경호, 성만이 주눅든 채로,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서 있다)

담 임; 왜들 싸웠나? 앙!? (엄숙하게)
성 만; 오늘 수학여행비를 가져왔는데 체육시간 끝나고, 옷을 입으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자못, 당당하게)

담 임; 그래서 경호가 가져갔다고 생각했나?
성 만; 경호가 주변이었는데, 누구 다른사람이 가져갈리 없잖아요.
담 임; 그렇다고 무턱대고 경호를 의심하고 삼질을 했던말야, 앙?
(화를내며)

성 만; ... (입을 꼭 다물고 경호를 썰러 본다)
담 임; (경호를 쳐다보며) 경호! 네가 가져갔나?!
경 호;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며 입술을 깨물고 대답없이 성만을 노려본다)

담 임;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일단 너희들은 싸움을 했으니까 반성문을 써오도록 하고 빨리 수업에 들어 갖!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안둬!
(성만, 경호 담임에게 인사를 하고 나온다)

#3 경호의 집

(허름한 비닐로 유리대신 끼워 놓은 문짝이 반쯤 열려 있고, 그 사이로 보이는 좁은 부엌을 거친 턱이 높은 방이, 문이 활짝 열린 채 환히 보인다. 방안에는 초라한 비키니 옷장이 가구의 전부 인듯하다. 담임이 혼자 앉아서 두리번거리고 있다)

경호어머니; (사이다 두잔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서 앉으며)
제가 찾아가 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요 선생님.

담 임; 아닙니다. 별말씀을요...

경호어머니; 우리 경호가 학교생활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통 신경을 못써서...

담 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가 상당히 내성적인것 같더군요.

친한 친구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어떤가요?’

경호어머니; 글썄 이녀석이 집에오면 동 말이 없어요. 학교 갔다오면 다락방에 틀어박혀 아침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일을 다니느라 어려서부터 혼자있어서 그런지... 동네친구도 없는것 같던데...

담 임; 아버님은...

경호어머니; (고개를 떨구며)

경호가 어릴때부터 헤어져 살았지요.

못난 에미 만나서 경호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다행히 애가 착해서 지금까지 나쁜길로 빠지지 않은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답니다.

담 임; (고개를 끄덕거리다)

(경호, 고개를 숙이고 주그리며 앉아있는 모습. 주변은 온통 어둡다. -경호의 평소모습을 잠깐 여백에 그려준다)

#4 학교 교실안. 점심시간

아이1; (호들갑 떨며, 도시락을 가지고 성만에게 와서)

야, 물마 (성만의별명)! 아까 재성이 버스표가 한뭇음 없어졌대. (이야기하면서 성만의 반찬을 집어먹는다)

아이2; 어, 그래? 참 이상하다. 어제는 달수 참고서가 없어져서 난리쳤잖아.

성 만; 그럴수 밖에 없어. 분명 오골계 녀석 짓이니까.

(혼자 앉아 있는 경호를 노려본다)

담임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빨리 데려다가 죽이지!

(여기저기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식사를 하며 떠들어 대지만 경호는 혼자서 묵묵히 도시락을 먹는다. 경호는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쓰게 웃는다)

#5 여름방학식 날. 교실안

(교실에서 아이들은 들떠서 놀러갈 계획을 세우느라 신난다)

(스피커에서 교장의 당부말이 들리고 아이들, 조용히 앉아 있다. 담임은 교탁앞에 서있다)

교 장; (스피커 상의 목소리로) 산이나 물가로 갈때는 꼭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알겠나, 재군! (신신당부 조로)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지만 자기들끼리 수신호로 마냥 즐겁다)

#6 답십집 (전화받는 모습)

(배란대의 화분이 보이고, 더운 열기가 눈에 보이는 듯. 덥게 느껴지는 햇빛을 피하려고 부채를 이마에 가져가며 전화를 받는 답십모습)

재 석; (전화상의 목소리로, 말뚱선 안에 재석의 얼굴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저, 재석인데요. 북한산에 아이들 몇명이 등산가기로 했는데요, 선생님도 함께 가지지요!

답 십; 오, 그래? 재미있겠는데!
근데 어찌냐! 내가 그저께 이빨을 빼서 아직도 쭈시긴한데~

재 석; (전화상의 목소리, 말뚱선 안의 얼굴) 아니,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선생님 가신다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방학식날에 등산가자고 먼저 말씀하셔서 꼭 믿고 있는데요.

답 십; 아, 그랬지! 에~ 좋아, 까짓거 같이 가자.
그런데, 경호도 같이 가면 어떨까?

재 석; (전화상의 목소리, 전화수화기가 클로즈 업)
좋~지요. 그러면 7월 24일날, 아침 9시에 6번종점에서 뵈게요.

답 십; (전화를 끊고 미소지으며 독백)
이번 기회에 경호에 대한 오해도 풀고, 서로 잘 어울릴수 있는 계기가 되야 할텐데...

#7 등산길 1

(산의 전경이 보이고 아이들이 죽 서서 산에 올라간다. 어떤 아이는 "와! 물이다" 라며 뛰어가고, 어떤 아이는 "야, 니들 좀 빨리와!" 라며 뒤를돌아보고, 어떤 아이는 "아이쿠! 죽것네. 엄니, 나 좀 살리도~" 라며 아이들을 웃긴다. 장면을 크게 잡는다. 장면 작아지며 성만이 땀을 흘리고 씩씩거리며 겨우 아이들 뒤를 따르는 장면)

성 만; (독백으로)
젠장할. 저 눈썹 신 오골계가 올 줄 알았으면 안오는건데 오골계란 별명부터 가당찮지. 오골계는 몸에라도 좋지만 녀석은 우리반의 골칫거리니, 원!
하긴, 비쩍 마르고 까무잡잡한게 꼭 병든 닭 같기는 하지만 말야.

재 석; (뒤돌아보며 측은하다는 듯이)
야, 물마. 너 폭포 달고 다니냐?

성 만; (재석을 흘려보며 독백으로)
물마라니, 짜아식. 교실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주제에. 게다가 오골계하고 꼴찌는 도맡아 다투면서, 몸무게 좀 가볍다고 까불고 있어. 밑에만 내려가면 넌 읊다, 읊씨!

(숨을 헐떡거리며)

근데 정말 미치도록 숨이 차기는 하다. 우리 엄마도 참, 엔간하지. 100킬로를 거의 육박하는 나를 허약하다고 날마다 보약이다 뭐다해서 거둬 백이니! 우리반 녀석들이 허프니, 물먹는 하마니하고 놀리지. 오늘도 엄마가 봤으면 기가 허해서 땀흘린다고 야단이겠지? 보약말고 과외나 안시켰으면 기가·질로 날텐데 말이야!

답 십; (아이들을 돌아보며)

자, 이제 좀 쉬었다 가자. 아직 정상이 멀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모두들 짐을 풀고, 바위나 나무에 기대 앉는다. 경호는 멀찌감치 나무 등지에 기대고 서 있다. 물마는 겹싸게 짐을 풀고 음료수, 군것질 짐을 꺼내 입에 바쁘게 넣는다. 물마 주변으로 아이들이 배를지어 물려든다)

답 십; (바위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워물며 혼자있는 경호를 바라보며 독백)

경호, 저 녀석은 참 수수께끼란 말이야. 집에 찾아가지 않았으면 저 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지나갔을거야.

재 석; (헛 기침을 크게 하며)

참새하고 까마귀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말이야, 포수가 참새를 겨냥해서 쏘려는데 글썽, 참새가 먼저 때문에 까맣게 되서 그냥 까마귀하고 헛갈려 버린거야. 그래서 까마귀를 쏘버렸거든. 근데 까마귀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이 1; 글썽... 참새야 잘있어~ 라고 했을거야.

재 석; (실로폰 두드리는 흉내를 내며) 땡! 다음 기회에...

(아이들 표정을 살피며) 뭐냐하면 말이야, 으흠, (자못 심각하게 얼굴표정을 지으며 아랫입술에 힘을 주고) 지가 말예요, 참새가 아니걸랑요! 라고 했다.

아이들; 와하하하-

재 석; (한참 웃다가 다시 심각하게) 근데 또 참새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이 2; (손으로 벨을 누르듯이) 삐-

까마귀야 고마웁- 라고 했다.

재 석; 어이고, 무식이 용감하기도 하지. 넌 꼭 나서더라!

너 틀린거 알지? (아이들 키득키득 웃는다)

뭐라고 했냐하면, "실례합니다-앙!" 했단다.

(다들 재석이의 여자같은 목소리에 한바탕 웃는다)

답 십; (일어서며) 자, 이제 다시 올라가자. 짐들 챙기고!

(다들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아이 1; 선생님, 이번에는 물마를 앞에 세워요.

아이 2; 그래요. 무거워서 잘 못 올라가니까 앞에 세우면 밀고라도 갈수 있잖아요?

아이 3; 짜아식. 그러니까 입마 작작 먹으랬지! 증말 하마처럼 살만 뒤룩뒤룩 쩌 가지구!

성 만; (거의 주눅든 표정)
(다들 다시 산에 힘차게 오른다)

#8 등산길2

(성만이는 걸어가다가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발이 후들거린다. 전면으로 배경없이 성만이의 힘든모습이 작게 처리)

성 만; (독백으로)

젠장할! 산엔 뭣 땀에 오르냐 말이야. 어차피 내려올걸. 그나저나 저 오골계 녀석은 무슨 꿑꿑이로 따라 왔담, 잘 어울리지도 않던 놈이. 답임도 그렇지, 왜 문제아를 감싸고 도는지 알 수가 없어. 지난번에 내가 잃어버린 수학여행비도 저놈이 훔쳐간게 틀림없는데... 어휴, 이놈의 배낭은 왜 이리 무거워! 이럴줄 알았으면 아까 실 땀 먹을것은 다 먹어치우는 건데! 이런, 또 먹는 생각! 그러니 살이 안찌고 배겨? 아이고 다리야~ (그래도 열심히 올라간다. 입김이 헉헉 나온다) 애고고공, 이젠 도~조히 못참겠다. 죄꿌만 앉아있다 가면 소원이 없겠다. (성만이가 털썩 주저 앉았을때 발등이 따끔하고, 풀숲으로 뱀 한마리가 기어간다)

성 만; 으악! 뱀-

(성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아이들은 어쩔줄 몰라한다. 답임은 손수건을 풀어서 성만의 발목을 묶고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애절하게)

답 임; 누가 독을 입으로 빨아내야 하는데, 내가 이빨을 뽑아서... 입에 상처 없는 사람?

아이들; 조-용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어떤 아이는 뒤로 물러선다. 답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목에 입을 대려는 순간, 답임의 얼굴만 바라보던 오골계가 나서며)

경 호; 선생님! 저어... 제가, 해 볼게요.

(경호는 껌싸게 몇번을 땀내나는 발목에 입을대고 피를 빨아내서 뱀는다. 물마의 눈에 눈물이 몇방울 맺히는것 클로즈업)

#9 병원

(병원 간판이 보이고)

의 사; (손을 씻으며 말한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독을 빨아내서, 쉽게 괜찮아질겁니다.

답 임;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의 사; (아이들을 돌아보고 웃으며) 참 우애가 좋은 아이들이군요 (아이들, 오골계를 쫓스려운 듯 바라보고)

성 만; (붕대감은 발을 절룩거리며 경호에게 와서 손을 내밀며)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오골계; (손을 잡으며 밝은 표정으로 쫓스려운듯이)

암마! 내가 뭐 널 위해서 독을 빨 줄 아냐? 짜아식- 선생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런거야, 입마. 괜히 사고나 나와라, 책임은 누가 지겠냐? (약간 멋적어하며)

재 석; 아, 근데 골계야. 하마 피 맛이 어떠냐?

난 닭이 하마 피 먹는줄 처음 알았다. 앞으로 흡혈계라고 부를게!

(선생님과 아이들, 병원이 떠나가게 한바탕 웃는 장면이 점차 먼거리의 장면으로 그려지며 노래가 깔린다)

[지문] (노래음표도 그려진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노래하는 아이들아,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노래하자.

배개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무언가를 기도하는 꼬마아이의

조그만 소원이 무언고 하니, 장난감 자동차가 갖고 싶대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 물고기 먹고, 산골에 사는 사람 감자 꺾 먹고,

뒷뜰의 풀잎은 이슬 먹는데, 별나라 사람들은 무얼 먹나요

별도 먹지요, 달도 먹지요, 해도 먹지요, 꿈을 먹고요, 사랑을 먹지요!

[끝]

제목 : 꿀찌를 위하여

유 미 숙

1

지문 - 달빛을 품은 한강은 깊은 어둠에 잠겨 오늘밤도 음흉한 꿈에 젖은듯 흐느적 거리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고수부지에서 한때의 무리가 개미새끼 만하게 보이는데 짐짓 싸우는 듯 뒤엉켜 있다. 주인공 중수는 상대방을 냅다 내지르고 도망친다. 성환 중수가 즐행랑을 친다.

곱술머리: 「쓰발! 오늘 빛은 이자까지 쳐서 갇아주마, 뉘!」

2

전등불이 촘촘히 밝혀진 달동네의 밤 전경이 펼쳐진다.

중수 : (드르륵 대문이자 부엌문을 열고 들어와 쪽마루 위에 가방을 털썩내려 놓는다)
「휴-」

어머니: (방문을 빼꼼이 열고) 「이제 오니?」 (중수는 방안에 들어서서 묵묵부답이다)

「허구헌날 뭘하길래 꼴이 그 모양이나? 그래 운동이 되냐 응?」

중수 : 「배고파요 밥이나 줘요」

어머니: 「내가 누구 땀에 사는데, 정신 좀 차려라」

중수 : 「에이 참」 (괜히 들어 왔다고 후회하는 일그러진 얼굴)

어머니: 「네 아버질 봐서라도 니가 변변하게 돼야 손가락질 면하지」

중수 : 「집어 치세요, 이미 쪽팔릴대로 다팔렸는데 새삼스럽게...」 (중수 방문을 쿵 닫고 뛰쳐 나간다)

3

담장이 무너져 내린 공터에 달빛은 쓸쓸히 쏟아지는데 중수가 처량히 푸그러져 있다

지문 - 중수에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교도 운동도 18세 중수의 어깨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굴레에 지나지 않았다.

중수는 푸그러진 채 무릎 아래 산동네를 응시하는데 불빛이 흐려지면서 1년전을 회상한다.

신도1 : (삿대질하며) 「야 니가 목사냐?」

신도2 : 「땅 장사에 소질있던데 아예 투기꾼으로 나서시지」

신도3 : 「더럽다 더러워! 지옥 1순위로 떨어질 작자야」

신도1 : 「하나님 이름을 팔아 땅을 사! 예라 이 순 사기꾼아!」

군중들 아우성을 친다

신도들: 「긴 말 필요 없다구,」 「법대로 해결 합시다,」 「경찰에 가서 따져 봅시다,」

아우성이 공중을 맴돈다. 목사인 중수 아버지는 먹살을 잡힌 채 꼼짝도 못하고 있다

중수는 회상에서 깨어나 머리카락을 움켜진 채 절규한다

중수 : (그악스런 비명으로 토하듯이) 「아 - 악!」

4

지문 - 고등학교 학년차와 식욕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 고3쯤 되면 그 식욕은 가히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법이니까. 진학에 놀려 허기진 마음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질 때가 없었다.

아이들은 빈 도시락을 챙겨 넣고 한개비를 피워 물고 왔는지 여유있는 폼으로 기지개를 켜는 등 고3 점심시간은 왁자지껄 하다

중수 : (뒷자리에서 일어나) 「에 - 여러분 입시 전선 사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들 빙뻐서 시선이 몰린다

중수 :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으로 삽니다」

학생1: (혼자말고 중얼댄다) 「에잇, 오늘 날쌌군」

중수 짐짓 앞줄 모범생을 향해

중수 : 「어이, 앞줄은 신경끄고 가자 일들봐. 배고픈 형아는 사업을 벌여야 쓸텐께」

학생2: 「사실 끊고 본론부터 댕겨라」

성환 : 「야 짜샤, 조용해 봐! 중수가 언제 구라친적 있냐?」

종수 : 「고정하시고 오늘은 참신한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너덜너덜한 책 가방에서 알팍한 책 몇 권을 꺼내 흔든다) 「고3 입시병을 확 풀어주는 만병통치 약!」 「갈증을 풀어주는 책 한권 완전히 고전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딱 한장에 모십 니 다.」 (손가락 하나를 펴서 흔든다)

진호 : 「천원이든 만원이든 내용이 삼삼해야 땡길 것 아냐」

종수 : 「죄끔만 맛배기로 보여 주지」 (종수가 재빨리 책장을 넘기는데 얼핏봐도 도색 잡지이다)

성환 : (종수를 거들어)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녀! 한번 일거안 봐! 팡팡 뚫려!」 「밤바다 영자꿈 꾸면서 헛발질 해대는 석재같은 학생들 요게 바로 특효약이야」 (아 이들 순식간에 시끌벅적 키들댄다. 교실은 북새통이 되고 점심시간 끝내는 종이 울 린다)

5

복도로 아이들 우르르 몰려 간다

학생1: 「속았다 속았어 너구리 영감 보통내기가 아냐」

학생2: 「우리 형도 졸업하기 전에 봤다 더라」

학생3: 「날은 더운데 고리타분한 영화보니까 머리에 곰팡피겠다」

종수네 반 교실문이 덜컥 열리고 아이들 쏟아져 들어간다. 교실 안은 책상마다 소지품이 쏟아져 있고 난장판이다

학생2: 「재수 .음 붙었군」

학생1: 「내 이럴 줄 알았지 감이 이상하더라구」

진호 : 「씨발! 가방 보고 싶으면 곱게 불일이지 이건 순 사기아냐」

성환 : (소스라치게 놀라며) 「없어 졌다!」

진호 : (손으로 제목을 가로 지르는 제스처로) 「이거 말야?」 (성환 일그러진 얼굴로 끄 덕인다. 곧 이어 사환 누나가 들어와 몇 아이를 호출하는데 물론 종수와 성환 진호 도 끼어 있다)

학생2: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

학생3: (이마에 손을 잡고) 「불러도 대답없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아 - 잔인한 4 월이여!」

6

아침 등교길 언제나 처럼 부산하다. 교문 앞 게시판에 아이들 우루루 몰려 있

다. 징계대상자 명단이 보이는데 의외로 김종수가 들어 있다

성환 : 「일이 잘못 돌아가는데...」

진호 : 「설마 종수가 도 대표로 뛰는데 징계를 먹이겠냐?」

성환 : 「너구리 끈대가 하겠다면 못할 것도 없지. 너와 난 구사일생이다」

이때 이석준 선생님이 다가온다

이석준 선생: 「야! 성환이, 진호로구나. 오늘 점심시간에 종수 좀 보자고 전해라. 상담 실 옆 느티나무 아래에서. (부지런히 들어가다 뒤돌아보며) 잊지마라」

7

이석준 선생 암울한 표정으로 담배 고나물고 먼 산만 아스라이 바라보고 있는데 종수가 머뭇거리며 다가온다

종수 : 「선생님 - 저어」

이선생: (종수가 뒷통수를 굽적이자 혼잣말 비슷하게) 「니들이 4월 햇살을 느낄만한 잠 이 있겠냐?」

이선생: (땅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나오는 민들레를 들여다보며) 「난 널 조금은 안다고 여겨왔다. 내가 칼을 썼다는게 아무래도 믿기질 않아」

종수 : 「사고치겠다고 태어나는 어린애는 없지요. 그릇이 처음부터 깨진채 굴러 다니지 않듯이」

이선생: 「깨어진 그릇이라... 험한 세상을 구르다 보면 쉽게 깨어지기도 하지. 하지만 손질하면 오래 오래 쓸 수 있단다」

종수 : 「동정은 필요 없어요. 나 같은 놈 태어난 것 부터가 신의 실수이니깐요」

이선생: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선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단다」

종수 : 「자신을 사랑하라구요? 싫어요. 사랑 후에 남는건 배신 뿐인걸요」

이선생: 「어른들도 살다보면 큰 실수를 하곤한다. 그 베어진 아픔을 감싸고 치료하는게 중요한거야. 아버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겠니?」

종수 : 「엎질러 진 물인걸요. 내가 할 수 잇는 일도 별로구요」

이선생: 「그나저나 넌 내일 합숙가는데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종수 : 「내 문제는 잘난 끈대들이 알아서 처분할텐데요 뭘」

이선생: 「내가 최선을 다해보마」

종수 :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며) 「이거 내일 열어 보세요. 웬지 선생님에게는 털어 놓고 싶었습니다」

이선생: (종수의 두 어깨에 손을 짚고) 「고맙다」

'사랑으로 지도하자'는 액자가 걸린 상담실 안 비품이 잘 정돈되어 있다

지문 - 오늘 오전의 선도회의는 역시 의례적인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사라진지 오래인 오늘, 누가 누구를 선도한단 말인가. 이교사는 자신에게 무기력함만을 재촉하는 현실로부터 점차 가위를 늘려가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나고 성환과 진호가 들어선다

이선생: 「성환이 진호로구나. 둘다 마음이 무겁지?」

진호 : 「종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선생: 「어떻게든 종수를 비켜가게 해야 됐는데...」

성환 : 「그럼 종수가...」

이선생: 「이 편지 받아라. 녀들은 종수에게 큰 빛을 쬐더구나」

진호 편지를 읽는 손이 가늘게 떨린다

지문 - 교회에서 말썽이 나서 아버지가 몸을 피하시고 난 후 어른들이 증오스러워졌어요.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채는 교인들을 보면서 저는 미칠것 같았습니다. 디스코텍에서 만난 여자애들이랑 쪽방 감을 자는 날은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런 짓 그만 두겠다고 결심해도 날이 밝아오면 원래대로예요. 그래도 한바탕 달리고나면 속이 후련해 집니다. 더럽고 치사한 세상 사람들을 실컷 패주는 기분으로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이런 저를 보고 유망주래요. 참 우습지요... 이번 싸움은 진호 성환이도 가담했어요. 일러바치려는게 아니라 맞은 아이들이 걸고 넘어지더라도 선생님이 꼭 막아 주세요. 그애들은 이번에 또 걸리면 끝장입니다. 모든걸 저 혼자 뒤집어 쓸테니 선생님 꼭 부탁드립니다....

진호와 성환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선생: 「그나마 다행이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됐다. 종수는 무기정학으로 일단락됐고. 너희들은 빠졌어」

진호 : 「죄송합니다」

이선생: 「용기있는 녀석이야 종수는. 비록 작은 용기지만. 너희만 죄가 있겠냐만 잘못이 있는만큼 서로 노력해보자」

성환 : 「뒤통수 급격이며」 「할 말 없습니다」

이선생: 「요즘 지내기는 어떻니?」

진호 : 「죽지 못해 지내지요 뭐. 대학 진학은 진작에 포기했구요」

이선생: 「그래 인생의 목표가 대학 진학은 아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허까 ㅁ비에 쫓겨 허둥대고 있으니...」

진호 : 「괜히 인문계로 왔다 싶어요」

이선생: 「늦진 않았다. 어떻게 살건지를 고민해보라. 주먹 세계의 의리는 의리가 아나 만용이지」

이 때 종이 울린다

이선생: 「그래 이만 가봐라. 힘내라. 너희같은 사고뭉치들이 어른되면 더 따뜻하게 사는 것 많이 봤다」

아이들 꾸벅 인사하고 나간다

지문 - 이선생은 아이들과 만나고 나면 늘 갈증을 느꼈다. 어디에서 오는 갈증일까. 애꽃은 콩초만이 수북이 쌓여갔다.

지문 - 그날 종례시간에 종수의 무기징역 처분 소식이 알려졌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만 거두면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잠시뿐 담임이 먼저 공표를 했다. 아이들을 다 잡을 호기로 여겼던 모양이다. 징계 소식에 덧붙여 훈계를 했다.

담임 : 「머리터지게 공부해도 대학에 붙을지 말지다. 정신 차려라. 뇌관에 불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녀석들아. (아이들을 둘러보며) 신문에 나는 인질범 얘기, 폭행치사 먼데 얘기가 아냐. 아차하면 녀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

선생 나간다

학생2: 「야, 끈대가 입에 담을 말이 따로있지」

학생3: 「나 같으면 시합날 단체로 조퇴시켜 종수 응원보내겠다」

학생1: 「암튼 너무했어」

아이들 슬렁인다

진호 : 「재오야 한개비만 주라」 (슬그머니 교실을 빠져나간다)

지문 - 교정은 어느새 어둠에 잦아들어 운동장에 비친 잔영은 교활한 너구리 교장을 연상케 했다.

강변도로에 성환이와 진호가 가방을 움켜 잡고 초조한듯 앉아 있다

성환 : 「수업까지 핑겨 먹고 나왔는데 어째 초조하다」

진호 : 「이새끼 술만 퍼마시더니 어디서 퍼져버린거 아냐?」

성환 : 「그러게 말이다」

열렬한 환호 속에 선두 주자인 양 다른 대표선수들의 행렬이 지나간다

성환 : 「정확 맞은거 알면 악이 바쳐서라도 잘 뿔텐데...」

진호 : (길바닥에 콩초비비며) 「유망주라고? 이새끼 꼴 좋게 됐다」

성환 : 「특기자 명단에서 빠져 대학도 못가는거 아니냐?」

진호 : 「너나 내나 뭘 팔자에 대학생 친구를 두겠냐」

성환이가 도 담배를 꺼내 무는데 강변로 꺾어지는 지점에서 오토바이 소리 들린다. 둘이 동시에 벌떡 일어선다

성환, 진호 : (동시에) 「온다! 」

지문 - 깃발을 높이 매단 안내 오토바이 옆에서 경충경충 뛰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종수였다

진호 : 「미친놈, 꼴지로 올거 오토바이나 타고 오는게 낫지」

둘은 가방을 어깨에 가로 메고 인도를 따라 슬금슬금 같이 뛰었다. 가까이보니 종수 얼굴은 온통 허연 소금기에 말이 아니었다

성환 : 「인도에 사람이 많으니 차도로 내려서자」

지문 - 둘은 차도로 내려 갔으나 꼴지가 불쌍한지 안내 오토바이를 탄 사람도 굳이 말리지 않는다

진호 : 「종수야! 우리 알아 보겠냐?」

종수 : 「...」

성환 : 「어디 아프냐?」

종수 : 「...」

진호 : 「다왔다. 힘내라」

종수 : 「...」

성환 : 「야 임마! 너 무기정학 먹었다. 오기도 없냐? 힘껏 뛰어!」

종수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아무 말이 없다

지문 - 이때 길가에서 '김종수 힘내라'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 왔다. 성환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뜻밖에 이석준 선생이 양복 웃도리를 벗어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다.

이석준 선생 : 「야! 종수야 힘내라 힘내! 다왔다」

이때 진호와 성환은 동시에 보았다. 흘끔 디돌아보는 종수의 얼굴에 번질거리는 담과 눈물을. 그리고 순간적으로 빛나던 파란 눈빛을

진호 : 「야! 종수가 빨라졌다」

성환 : 「짜아식! 역시 멋있는 놈이야」

지문 - 꼴지간다며 연도에 모여든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목덜미계가 선뜻선뜻한가 싶었는데 대번에 굵은 빗줄기가 앞을 가렸다. 진호와 성환은 뛰기를 멈추고 빗속에 뿌영게 떨어지는 종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석준 선생도 그 자리에 서서 비를 맞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이 길가 버들을 휘휘 감아 올렸다.

제목; 힘찬 발걸음

김지나

#1

(병원 건물이 크게 보이고 가로질러 병동으로 향하는 진수.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가 보인다)

[지문] 아버지, 이제야 철이 든 기분이에요.

'대학' 이라는 높은 내게 아주 가늘고 썩은 동아줄을 내 밟았을 뿐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오르려 했던거죠.

이제 제 길이 확실하게 보여요.

좀 뒤늦었지만... 아버지...

(어렸이 누워있는 병동.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는 진수의 아버지.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있다. 침대에 가까이 간 진수. 노점단속반에게 싸우다 심하게 맞는 장면-맨 뒷장면과 동일-을 떠올리며 분노한다)

진 수; (불끈 주먹을 쥐며 가슴속으로) 아, 아버지.

아버지; (눈을 뜨며) 진수 왔구나. 학원은 어찌고?

진 수; (의자를 당겨 앉으며) 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아버지; 그나저나. 공부할 짬도 없을텐데 얼굴 봤으니 이제 가라.

할머니 금방 오실테니.

진 수; (쭈뼛거리며) 아버지, 저 내일부터 취업나가요.

어머니도 이젠 일이 힘에 부치신것 같고...

아버지; (한숨을 크게 내쉬며) 휴-

너만이라도 이 교생 면했으면 싶었는데. 에이 예비가 못나서...

진 수; 아니에요, 아버지. 저 이제 다 컸어요.

아침에 아버지 면도기로 면도도 하고 왔는걸요.

아버지; (대견스러운 듯 진수를 바라본다)

#2

(첫 출근길. 이른 새벽 대문 앞에서 진수와 윤성이 만난다. 쪽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앞으로 길이 갈라진다)

진 수; 준비 잘 돼가? 힘들지?

윤 성; 그나저나 넌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너두 학교에서 자습 하려는 모양이구나?

진 수; 아니, 나 출근길이야.

윤 성; (놀라며) 너! (이해했다는 듯) 그래, 어떻든. 마! 되게 어른스러워 보인다. 근사한데!

진 수; 근사하긴. 이제부터 뽀뽀 길일 뿐인데.

(갈림길 앞에서)

진 수; 난 저쪽 너머로 가서 전철 타야돼. 바쁘게 이서 가.

윤 성; 그래. 너 나중에 월급타면 한턱 내기다!

(진수, 씩 웃는다. 종종히 사라지는 윤성을 보다 뒤돌아서 터벅터벅 걸으며)

[지문] 그랬다. 지난 여름, 윤성이 너나 미라처럼, 내겐 좀 박차긴 했지만 엇비슷한 꿈을 꾸었다.

그 보랏빛 꿈은 폭우를 감춘 비바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 여름 혹독했던 수마가 가난한 이들의 가슴을 활쫓고 지났듯

나도 심한 절망감에 가슴이 너털거릴 정도였지.

.....

너의 새벽 등교길이 내겐 터없는 부러움이었으니까.

3

(이른 새벽, 윤성의 등교하는 모습)

윤 성; 다녀올게요.

(“꽝” 현관문소리, 계단 내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진수)

(할머니, 은이가 잠든 방에 후다닥 일어나는 진수의 모습을 배경으로, 방안은 아직 어둡다)

[지문] 어영부영 봄바람은 망설임 속에 보내고 어렵지만 대학을 진학하리라 마음 먹은 건 여름 터위가 딱 시작된 무렵이었다.

진 수; (상반신을 벌떡 세우며 급히 시계를 더듬는다)

이크! 시각이다!

진 수; (마당에서 칫솔질을 하며) 내일부터 윤성이 일어나는 시간에 나두 일어나서 공부 좀 하다가 가야지.

인문계 애들 진짜 겁나게 공부한다던데. 그틈에서 시험을 치려면 난 곱절로 해도 모자랄꺼야.

4

(희뿌연게 밝아오는 아침, 윤성의 학교건물이 보인다. 각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새벽빛과 어우러지고 윤성의 교실모습이 보인다.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D테이를 세는 달력과 수업시간표가 클로즈업된다.)

5

(점점 해가 높이 솟아오르고, 경산기계 공고가 보인다. 교문 주위에 지도부와 빨강셔츠가 지각생을 잡고 있다. 혈레벌떡 뛰는 아이들 속에 진수와 그의 친구 영표가 보인다)

진 수; 야! 박영표. 같이 가자, 마! 이미 늦었는데.

영 표; 빨리 뛰어! 또 혹시 야나? 성의가 가상해서 원산폭격 정도는 면해줄지...

진 수; 꿈깨! 저 귀신 같은 빨강셔츠에게 그런 온정이 있겠냐? 너 생각 안나? 지난 겨울에 애들 팬터만 입혀서 뽀뽀 시킨거.

영 표; 알았다. 알았어.

1 1

(다시 진수방. 할머니가 자리피고 있고 은이, 진수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있다)

할머니; 은이야, 안자나?

은 이; 먼저 주무세요. (귀찮은 듯)

할머니; (자리에 누워서) 은이야, 니 그 청주집 우물맛 생각나자?

은 이; (못들은 척 계속 책을 본다)

할머니; 오늘 옆집 천진네 할멈이랑 저 뒤의 약수터엘 안갔나?

은이야, 너도 그 약수터 가본적 있지, 왜?

은 이; (대꾸가 없다. 얼굴은 불만투성이다)

할머니; 자가 가는귀가 먹었나?

진 수; (뒤돌아보며) 할머니, 우물물은 왜요?

할머니; 그래, 약수터엘 갔었는데 물맛이 영판 아니더라.

옛날 청주 시골집 우물은 한여름에 논일하고 땀 뻘뻘 흘리다 들어와 마시면, 마, 속이 다 선선해지고 목이 탁 트이는 거 같았는데 이젠 뭐 약수라더니 수도물 맨치 넘세도 뻘뻘하고...

은 이; 할머니, 이젠 좀 주무세요. (짜증스럽게)

할머니; 아니, 자가 왜 저러나,

에고... 늙었다고 손녀까지 팔세하고.

은 이; 저 내일 시험이란 말예요!

할머니; 누가 뭐라나.

은 이; 내일 시험 망치면 할머니 탓인 줄 아세요!

진 수; 아니, 은이야, 너 왜 괜히 할머니한테 신경질이야, 어?

니 공부 니가 알아서 하지 못하구.

은 이; 모르면 가만 있어, 오빠.

아까 오빠가 윤성오빠네 갔을 때부터 계속 시골집 애기셨어. 집중이 돼야 공부할거 야나!

진 수; 핑계 마!

할머니; 됐다, 야들아.

(돌아누우며) 늙으면 빨리 가야지...

진 수; 은이 너 알아서 해. 한번만 더 그따위로 행동하면 가만

안두겠어! (문을 쿵 닫고 밖으로 나간다)

(마당에서 2층 윤성의 방을 쳐다본다. 윤성의 조용한 방분위기를 떠올린다)

진 수; 윤성이 자식, 좋겠어.

(밭로 정원의 나무를 걷어차며)

에잇! 안되겠어. 단과학원이라도 끊든가 해야지.

집이라고 일찍 와봤자 머릿속만 복잡하고.

(어두운 정원, 망연히 서 있는 진수의 모습을 배경으로)

[지문]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대학과, 그것으로부터 이어지는 무한한 미래.

그곳을 향한 나의 길 앞에는 무수한 벽들이 막아서고 있었다.

처음엔 나즈막하며 쉽게 넘어서리라 자신할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벽은 점점더 두텁고 높아만 갔다.

#12

(늦은오후. 진수는 학원을 향해 걸으며 아침 일을 생각한다)
어머니; (음성만) 진작 말하지 않구. 할수없다.
여보, 오늘 물건할돈 있죠? 그거라도 우선 주세요.
옛다. 이왕 시작하는 거 열심히 해라.
(학원안. 비좁은 의자에 아이들이 잔뜩 앉아 있다. 열심히 강의하
는 강사.

판서내용: 1.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①의미상의 주어 [for + 목적격
사람의 성격 + of 목적격

②의미상의 주어생략 [주어=의·주
목적어=의·주

일반인 (we, they, people)

예문) It is considerate of you not
to play the piano.)

강 사; 그럼 부정사만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알아볼까요?
런 (learn), 인텐드 (intend), 어드바이스 (ad-
vise) ...

(진수옆의 학생, 열심히 들으며 강의 내용을 적어내려가고, 진수는
기웃거리다)

진 수; (속으로) 이거원, 뭘 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는데,
(진수, 기웃거리며 옆의 학생 필기를 옮겨적다가 낮익은 한 여학
생을 발견한다)

진 수; 어?제가, 그래. 미라, 미란데...
(어느덧 강의가 끝나고 쏟아져 나가는 아이들 속에서 미라를 찾
는다. 사람들 사이를 겨우 비집고 학원 밖으로 나간 진수. 황급히
미라를 부른다)

진 수; 황미라, 황미라!

미 라; (뒤돌아보다 조금 뜻밖이라는 듯) 어?진수오빠 아니예요?

진 수; (흡족해 하며) 내 이름, 안 잊어버렸어?

미 라; (빙그레 웃으며) 근데 오빠 어떻게 여길.

진 수; 중요 과목이 좀 뒤떨어지는 거 같아서.

미 라; 근데 오빠 경산공고 다녔잖아요?

진 수; 어- 대입준비 하려구. 전문대라도 가는게 앞날을 생각해볼
때 좋을 거 같아서.

미 라;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건다가) 어, 88번이다.

오빠, 저 먼저 갈게요.

진 수; (빙달아 바쁜듯) 그래.

(진수, 충충히 사라지는 미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수] 말없이 왔다, 말없이 가는 아이.

그래서 어딘지 생각이 깊고 세심해 보이는 아이.

미라에 대한 나의 기억은 그정도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뜻밖에 만난 미라의 얼굴이 그날따라

픽이나 고와보였다.

#13 (진수네집)

진 수; (집안으로 들어서며) 다녀왔습니다.

(안방에서 "그래" 하는 대답소리 들리고 두런거리다)

할머니; (방문을 열며) 진수 왔구나. 힘들지? 내 금방 저녁차려주
마.

진 수; (방안으로 들어서며) 할머니 뵈어요. 제가...

할머니; 안된다. 사내아가 부업들어 가는거 아니다.

(진수, 가방을 두고 수건을 어깨에 걸머지고 편안한 트레이닝 차
림으로 나선다.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칫한다)

엄 마; 리어커며 물건이며 죄다 뺏겼으니 어찌지요!

애들 이제 공납금도 쥐야하고 월말아라 세금고지서도 잔뜩
인네.

아버지; (담배를 문채) 휴-

엄 마; 지 몸도 예전같지 않아서 녀의 집 빨래, 오전 나절에 해
대고나면 백이 탁 풀리는게.

진 수; (마당에 나서며)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수를 하려다 말고) 아니지. 군에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
업하려면 최소한 5, 6년인테.

아싸리 취업해서 돈이나 좀 모아두고 군대나 갈까?

(머리를 지으며) 아냐! 눈 딱 감고 처음 계획대로 밀어부
치는 거야.

#14

(쉬는시간, 진수네 교실. 왠지떨린 분위기. 진수, 조용히 자습하고
한쪽 구석에 도색잡지 펼쳐져 있고 아이들 몰려 있다. "야~죽
여주는데!", "뽕간다, 뽕가!", "이거 어디서 구했나?")

(수업시간, 손을 들어 질문하는 진수. "선생님 13번 문제에서요
, 왜 근의 공식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뒤에서 수군거리
다. "저 자식 대학간다구 되게 뽕다구 잡는데...")

#15

[지문] 그 여름 늦더위 끝에 배달된 장마가 사람들의 예상을 뒤
엎는 폭우를 동반하여 세상이 온통 들쭉거렸다.

그리고 더위가 잦아 들고 선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
다.

하지만 내겐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화살같은 시간의 흐름을 감득할 조금의 여유도 없이 내
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가기 바빴다.

(학원을 향하는 진수의 모습이 몇몇 반복된다. 대입용 달력의 숫
자가 점점 작아진다. →시간의 흐름을 암시)

장면1-학원수업을 열심히 경청하는 진수.

장면2-학원 쉬는 시간 열심히 노트정리하는 진수.

장면 3—끝나갈 무렵 졸린 눈을 비비며 강의 듣는 진수.
 (장면 1, 2, 3을 배경으로 지문을 처리한다)
 (학원 귀가길. 미라와 다정하게 나오는 진수)
 [지문]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학과 나를 막아선 두터운 벽은 나를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밤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높아갔고,
 노점단속은 점차 강화되는 모양인지, 아버지는 빈손으로 들어오기 일쑤였다.
 휘청휘청 쓰러지고만 싶었다.
 유일한 기쁨이라면 미라와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조차 손에 닿을 듯, 닿을 듯 멀리 있었다

진 수;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갈까?
 미 라; 그래요.
 (계과점에서)
 진 수; 공분 잘돼가?
 미 라; 아직 고2니까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진 수; 아이스크림 두개하고 빵좀주세요.
 야, 황미라. 한살 차인데 말좀 뇌라!
 미 라; (빙긋 웃으며) 그럴까요.
 진 수; 또 '그럴까요' 야?
 미 라; 어머. (유쾌하게 웃는다)

(학원. 강의실안을 두리번거리는 진수. "애가 오늘도 또 만나올 모양이지!" 밀려나가는 아이들 속에 쓸쓸해 보이는 진수를 배경으로)

[지문]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다.
 미라의 해맑은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석연치 않았던 난관들의 최초의 징후였다.
 학원에서 본 모의고사 성적은 내 노력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어머니의 잦은 병치레에 마음은 자꾸 허공을 떠돌았다.

16
 (진수네 아침시간. 안방에 앉아 누운 진수의 어머니)
 진 수; (걱정스러운 듯) 엄마, 다녀올게요.
 어머니; 진수야, 걱정말고 열심히 해.
 이깟 몸살, 사나흘이면 툭툭 털고 일어난다.
 진 수; 꼭 쉬세요.

17 진수네 학교
 (진수네반 교실. 취업나간 아이들로 들성들성 자리가 비어 있다.
 진수, 뉘엿고 앉아 있다. 연습장에 낙서를 끄적인다. 연습장에 미라의 영상이 오르고 그 위에 "황미라, 황미라" 적혀 있다. "절망" "다 배려치워 버려!" 등등의 낙서가 적혀 있다)

젠장 이판사판인데 숨이나 좀 돌리자.

6
 (빨강셔츠, 지각생들을 호령하며 토끼뿔을 뒤통에 쓴다. 지각생들 틈에 진수, 영표가 킁킁거리는데 보인다)
 영 표; 빌어먹을.
 진 수; 야, 야. 이정도면 약과야! 불평 마.
 빨강셔츠; (위 치지는 아이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야, 입마! 니 궁뎅이는 금으로 만들었냐? 뭐가 그렇게 무거워! 빨리빨리 뛰지 못하나! 수업시간 다 되었는데 (아이들, 함들게 토끼뿔을 뒤통)
 (빌발던 아이들을 집합시켜 놓고 마지막 호령하는 빨강셔츠)
 빨강셔츠; 니들중에 한놈이라도 내일 또 지각해서 내눈에 띄면 그 날은 지옥훈련인 줄 알도록! 알겠나!

학생들; 예!!
 빨강셔츠; 자, 이만 해산!
 학생들; 감사합니다.
 (지각생들, 삼삼오오 흩어진다)
 진 수; 이걸 완전히 경산특수부대라니까!
 영 표; 야, 불쌍한 청춘이여!
 (약자지결한 교실분위기. 실습복으로 갈아입는 아이들. 시간표가 클로즈업되고, 진수는 피곤한 듯 땀을 닦으며 작업복으로 갈아 입는다)
 진 수; (마음속으로) 아침에 단어나 몇개 외워볼까 했더니 다 틀렸군.

7
 (경산공고 귀가 시간. 하교하는 학생들, 건물에서 하나들 빠져나온다. 이윽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교문을 벗어나는 진수와 영표 및 친구들)
 친구1; 박영표. 어제 근사하던데! 어디서 그런 기발난 계집애를 꼬셨나?
 영 표; 신경 끊어, 자식아. 켜 내 사촌동생이야.
 친구1; 마! 연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
 뭐가 부끄럽다고 촌스럽게 사촌동생 타령이냐?
 어깨에 힘 딱 주고 자라스러워해도 시원찮을 판에.
 친구2; (친구1을 보며) 참, 너 오늘 일 찌그러지지 않았지?
 진 수; 니들 오늘 미팅 있구나. 오늘은 어디 애들이냐?
 친구2; 그래, 진수야. 어빠, 우리랑 한탕 안떨래?
 진 수; 싫다! 돈없애, 시간없애, 남는게 없더라.
 친구2; 후회한다, 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도 아닌데.
 당장 올해 취업나가면 이젠 영락없이 공돌이야.
 누가 우리같은 공돌이하고 미팅하겠냐?
 진 수; 그래. 많이 해라. 이 빛나는 청춘들아.
 암튼 오늘, 니들 파트너, 눈깔나올 만큼 기깔나길 바라마!

이 고상한 형님은 이만...

(진수, 다른 골목으로 접어들다)

영 표; (다른 친구들에게) 야, 내가 뽕빵하면 안돼나?

친구 1, 2; (영표를 쥐어 박으며) 안부처, 이 새까!

8

(진수, 학교 근처 골목길을 걸으며. 저쪽에 서점이 보인다)

진 수; (혼자생각) 어제 윤성이가 뭐가 좋다고 했더라.

(시간차를 두고) 그래, 맨투맨이랬지. 설명이 자세하했어.

진 수; (서점에 들어가 이것저것 둘러보다) 아저씨, 00에서 나온

수Ⅱ참고서하구요, 맨투맨 영이 주세요.

(주머니를 뒤적여 돈을 내고, 서점아저씨는 책을 쓴다)

꼬마손님; 아저씨 드래곤볼 (27) 번 나왔어요?

아저씨; (진수에게 책을 내주며) 어, 기다려.

(진수, 서점문을 열고 나가며 새로움게 마음을 다진다)

진 수; (혼자 생각) 한번 해보는거야. 쉽진 않겠지만 악돌고 하면, 전문대 정도 못가겠어?

9

(진수, 여동생 은이, 나란히 책상에 앉아 공부한다. 한편 구석에서 진수의 할머니가 화투를 뜬다)

진 수; (수Ⅱ참고서를 한창 들여다보며 킁킁댄다)

도저히 안되겠군. 고등학교 3년을 통틀어 처음보는 개념이니,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야지, 젠장.

(책을 들고 주섬주섬 일어난다)

할머니; (화투를 맞추며) 어쿠, 야야 은이야. 니 애비 올해는 말년 운이 좋게 나왔어.

은 이; (약간 성가신듯) 오빠, 어디가려구?

진 수; 윤성이한테 물오봐야겠어. 앞에서부터 콧 막히니까 한페이지도 못나가겠는걸.

10

윤성엄마; (현관문을 따주며) 진수구나. 애, 윤성아-

진 수; 아니예요. 제가 윤성이 방으로 올라갈게요. 물어볼게 있어서

...

윤성엄마; (빙긋웃으며) 그래나.

(진수, 2층 윤성의 방으로 올라간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수. 아늑하고 조용한 윤성의 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스탠드를 켜고 열심히 공부하던 윤성이 조금 놀란듯 뒤돌아보며)

윤 성; 어, 웬일이냐?

진 수; (멋쩍은 듯) 이거좀 물어보려구.

윤 성; '항렬' 문제구나. 암마 너 대입준비하는구나. 잘 생각했어.

진 수; (쑥스러운 듯) 그냥, 한번 해보는거지 뭐. 이 문젠데...

(윤성, 진수. 열심히 함께 문제를 풀어본다)

18

(방과후. 진수가 학교앞 정류소에서 학원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힘 없이 서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버스에 올라, 스쳐가는 거리를 내다보며)

[지문] 처음 학원을 등록할 땐 다 자신 있었는데
이젠 힘이 빠져.

그만, 다 그만둬야할 때가 됐나봐.

미라, 그 아인 오늘도 보이지 않겠지.

내일 취업나갈 영표 녀석이나 만나볼까!

19 학원

(강의 시작전. 어수선하지만 아이들이 빼곡히 앉아 있다. 수심에 잠겨 앉아 있는 진수. 저 앞으로 걸어나가는 미라를 발견한다)

진 수; (너무 반가워 큰소리로) 야, 황미라! 이리와, 여기 자리 있어.

주위사람들; "재들 연애하나 보지."

"자식들 학원이 무슨 미팅장손줄 아나." 등등

(미라,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그냥 앞으로 가서 앉는다)

미라친구들; (앉아 있다가 미라가 곁에 앉자) 웬일이니? 저남자? 웃긴다 애!

진 수; (약간 멋쩍어하며) 어? 재가 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진수, 자꾸 앞에 앉은 미라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휴식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기 무섭게 미라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간다)

진 수; 미라야, 나가서 커피 마시자.

(미라, 따라 나선다)

진 수; 어떻게 된거야? 어디 아팠니?

미 라; 오빠, 아까 그렇게 사람 많은데서 큰소리로 부르면 어떡해요. 창피해서 죽을 뻔 했어요.

진 수; 미안, 미안. 너무 반가워서.

미 라; 시험준비 때문에 못왔어요.

진 수; 그랬구나. 난 또 어디 아픈가해서 걱정했어.

(다시 수업시작 벨소리가 울린다)

진 수; 미라야, 들어가자. 이따 끝나고 봐!

(미라, 별 반응없이 들어간다)

(여전히 수업보다 미라에게 관심많은 진수)

진 수; (주머니를 뒤지며) 내가 오늘 얼마 있더라. (꺼내보며) 사천원하고 8백원. 됐어, 이정도면. 이따 미라랑 저녁 먹어야지.

(약간 들떠 있다) 근에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20

(학원을 나가는 아이들 틈에서 미라를 따라나서며)

(미라, 친구들과 앞서 걷고 있다)

진 수; 저, 미라야! 잠깐 나 좀 봐.

(미라, 친구들로부터 빠져 나온다)

같이 저녁이나 먹지 않을래? 냉면 사줄게

미 라; 저녁 먹었는데.

진 수; (약간 실말스러운 듯) 그럼, 주스나 아이스크림 어때?

미 라; 친구들 만나서 공부하러 가기로 했어요.

진 수; 공부하러 어디로 가는데?

미 라; 학교 앞 독서실요.

진 수; (약간 초조해 하며) 가방두고 잠깐 나오면 되잖아.

(앞서 있던 미라의 친구들)

친 구; 애, 빨리와!

미 라; (황급히) 갈게요, 안녕.

진 수; (멍하게 서있다)

친구1; 누구니? 애인이니?

친구2; 응응, 개야? 너 귀찮게 한다는 고3?

친구1; 그럼, 그 공돌이? 애, 갠 왜 그렇게 주제파악을 못하나?

(충격속에 서 있는 진수의 머릿속에 "그공돌이? 그공돌이? 그공돌이?
?... " 소리가 지워지지 않는다)

21

(진수,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이들과 밀려 다닌다. 오락실에서의 모습. 디스코장에서의 진수. 아이들 "오! 예!" 연발하며 춤에 열중하고 진수, 테이블에 앉아 술을 거꾸 마신다. 이 장면을 배경으로)

[지문] 더 이상 희망을 들끓이라곤 아무때도 없었다.

저우저우 버켜내려 안간힘 썼으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고 끈게 끌어나가기에는 나의 두다리는 아직 너무 약했다
몇날며칠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이들과 밀려다녔다.
누군가에 대한 터러운 복수라도 하는 양.

22

(진수, 친구들과 어울려 명동거리를 걷고 있다)

[지문] 가을바람이 소슬한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언제나처럼 몇몇 친구들과 어울려 명동으로 진출했다
참한 여자애들을 꼬셔 "토요일은 밤이 좋아"로 들썩거리
는 광란의 밤을 위해.

(명동거리 한 구석에 모여서서 담배를 피우며)

친구1; 야! 저 기집애들 잘 빠졌는데.

친구2; 내가 가서 짐작해 보지.

친구1; (잡으며) 관둬 마, 그얼굴 들이대면, 도망가지 않는게 다행이지.

진 수; (속으로) 자식들! ...

[지문] 그때였다. 주황색 복장에 제법 장비를 갖춘 한배의 사람들이
이 호루라기를 불며 명동북관을 우르르 몰려다녔다.
그러나 저편 어디선가 후다닥, 한손에 수레를 끌고 났다

달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일순 심장에 번개맞듯이 강
한 전율에 휩싸였다. 단속반원들의 저친 숨소리와 빠른 발
자욱 소리. 내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향했다.

장면—다리가 불구인 듯한 40여세된 노점 잡화상, 분노에 이글거
리는 눈빛으로 서 있다. 한차례의 점진. 산사조각나는 수레를
아버지의 모습이 겹친다.

진 수; (갑작스레) 아, 아버지.

23

(공단거리. 사람들은 '출근길이 바쁘다')

[지문] 아버지, 이제 더 이상의 절망은 지독한 비굴함을 의미한다
는걸 알았습니다.

이 험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나요?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야 제가 일생을 걸 희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어렵듯하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끝]

무노동 무임금

유 미 숙

1. 작업장안

김씨 : (스위치를 내리며) 싸게 한 술 뜨고 야간해야 쓰겠네.
 프레스기 : 김씨 오늘도 야근이유? 난 오후만 되면 어지러운게 앞이 노래지는구면. 잔업 시간에 조퇴하고 싶은데...
 김씨 : (필쩍튀며) 음메 거 무신 배부른 소리라나? 한달 잔업 150시간을 해도 다섯식구 풀칠하기 바쁘디.
 프레스기 : 몸이 무쇠가 아닌다음에야 김씨도 어찌 견디겠소. 난 굶은 날만 되면 신경통이 도져 목표 불량을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김씨 : (프레스기를 가리키며) 그렇게 자네도 젊을적에 한푼이라도 모았어야 맘이 편할 것인디. 쫓쫓... (김씨 기계를 등지고 돌아서며) 잔업이 읊어봐 기계덜이야 좋겠지만 우리덜이 당장 목구녕에 거미줄을 칠텨께. (프레스기 밀링기를 쳐다보며 혀를 찬다)
 프레스기 : 먹고 살기 힘들면 임금을 올려야지. 잔업으로 때우면 우리만 골병들고 노동자들은 제 살과 뼈속 후벼내는 걸 왜 모를까?
 밀링기 : 노동자들이 제밥그릇도 못찾아 먹으니 우리만 고달프군.

2. 월급날

반장, 한사람씩 호명하며 월급봉투를 나누어 준다.
 김씨 : (월급봉투 속을 들여다 보며) 월급날은 맘이 서글퍼진당께. 워지 또 한달을 보낼까 답답도 허고.
 프레스기 : 잔업도 많았는데 김씨 주머니가 두둑해졌소?
 김씨 : (목에 두른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웬걸. 쉐빠지게 일해봐야 맨날 그 타령이지 뭘. (월급봉투를 흔들며) 노동의 갯가가 고작 요것이니께.
 프레스기 : 내가 한수 일러 주리다. 김씨가 받은 월급(임금)은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리 정 확히 말해 노동력의 댓가입니다.
 김씨 : 노동의 댓가나 노동력의 댓가나 얹어치나 메치나지. 요상한 말장난 그만두더라 구.
 프레스기 : (책망하듯) 어리숙한 양반아! 사장이 기계와 원료를 100원치 들여다가 노동자가 400원어치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이때 300원어치 새로운 가치가 생겨 나는데 이게 바로 노동자가 일한 노동의 댓가란 말입니다. 이 300원의 노동의 댓가에서 일부분인 50원을 임금으로 받으니까 노동의 댓가가 아닌 노동력의 댓가, 즉 생계비로 임금을 받는거지요.
 김씨 : (머리를 긁적이며) 알듯 말듯 하구면. 그럼 내가 택도없이 쥐꼬리 만큼 받았다는

말이여?

프레스기 : 김씨가 일한 노동의 댓가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임금으로 받았다는 말이지.
 김씨 : 이따 공단주점서 한잔 킅을 것인데 라인사람덜허고 얘기해봐야 쓰겠구면.

3. 1) 파업전야 :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와 사장의 반대 => 파업까지의 과정 2) 파업

노동자1 : 기계 여러분. 오늘 우리 노동자들은 파업을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곁에서 지켜보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이제 우리 노동자는 마지막 단결투쟁의 깃발을 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밀링기 : 노동자 여러분덜! 여러분덜이 함께 심을 합쳐 임금투쟁하는 것을 우리덜이 반 대할 것이 읊지만서도 그러도 일을 하문서 씬을 해야지. 여러분덜이 손을 놓아 버 리면 우리덜은 그날부터 죽은 목심이나 다름없어요.
 용접봉 : 노동자들 답답한 사정을 우리가 모르남! 허지만두 파업만큼은 안돼요. 우리 기 계들 생각도 해야지 안남. 당장 일을 안해 기름을 못얻어 먹으면 녹이 췌고 병신이 될텐데.
 노동자2 :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드높은 사기로 여러분들과 만날 것 입니다.
 김씨 : 시키는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던 나도 이참에는 요것이 아니구나 느꼈단 말이 요. 세상에 모든 것을 노동자 우리덜이 멩기는 것인디 먹고살아보겠다구 월급을 죄 게 올려달라는데 고것도 안들어줄라든 우리도 일할 수 없다 이겨여. 가진게 몸뚱이 라뿐인께 푹푹 뭉쳐 싸우는겨.
 기계들 더따다 한다디씩 : 파업만은 안돼! 병신되기는 싫어! 고철로 팔려가기는 정말 싫어!

4. 무노동 무임금 (폐업신고)

사장이 몸소 나와 기계앞에서 일장 연설을 한다.

사장 : 오늘 아침 노동자들이 한명도 출근을 안해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간 '나의' 회사는 막대한 경영적자를 보았다. 그러나 이 어진 싸장님께선 적정선에서 타협하려 했지만 파업시 임금까지 지불하라니 말이나 되는가.
 용접봉 : (고개 끄덕이며) 그건 그래요.
 사장 : "무노동 무임금" 정부의 현명하신 시책임과 동시에 지엄하신 분부였다. 정부시책이 아니래도 내가 총알 맞았나 일도 안는데 왜 임금을 줘. 이 괴심한 사태에 직면 하여 나는 위장폐업을, 아차 실수. (입을 막으며) 그냥 폐업을 단행하였다. 공권력 의 위대한 힘으로 노동자를 몰아내고 이제 우리 회사에는 평화가 도래하였다. "무 노동 무임금". 촌보도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인 것이다.
 그라인더 : 무노동 무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든 어쩔것이지요?
 사장 :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 손해배상 청

구를 하면 100% 이기게 되었다. 우리 회사 앞의 동신정밀에서도 어떤 일간이 하나가 30년간 월급의 반을 사장에게 바쳐야하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다.

프레스기 : 노사관계를 노동법으로 풀지않고 민법으로 푼다면 당연히 사장님처럼 가진자 편이 소송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사장 : (손을 휘저으며) 아아- 긴말이 필요없다. 억울하면 파업을 말든지 파업중에 무슨 임금이나?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다. (헛기침 뱉으며) 에헬, 자 기계여러분 노동자를 대신해 총매진 하기 바란다. 이상!

기계들 : (거수 경례를 붙인다)

사장 : (받아 경례를 붙인다)

5. 사장실

사장 책상을 치며 혼자 좋아 죽을라고 한다.

사장 : 우헤헤- 이젠 골치덩이 노동자들을 싹 쓰어 버렸다. 역시 위장폐업은 만병통치약이야. (소파위로 털썩 주저 앉으며 기지개를 켜다) 오늘부터 나는 기계위에 군림하는 왕중 왕이다. (눈이 까무룩해지며 하품을 하고는) 아함, 즐려.

프레스기 : 노동자들이 모두 일손을 놓았으니 오늘부터 사장 당신 혼자서 일해. (사장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프레스를 누른다)

밀링기 : 내 공정이 밀리고 있잖아 (사장 머리를 쥐어박으며) 껌싸게 손 놀리지 못해.

사장 : (헛떡거리며) 예, 예. 빨리 할게요.

바이트 : 물량 못채우면 오늘도 철야야.

사장 : (뒤통수 급격이며 겸연쩍은듯) 사실 오늘이 마누라 생일입니다.

바이트 : 내가 언제 노동자들 정시 퇴근 시킨적 있어? 값싼 일당으로 실컷 쥐어짜놓고 염치도 좋다. 흥!

사장 : 그래도 하루만 쉬게 해줘요. 이달 잔업이 150시간을 넘었는데. 그럼 당신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겠어.

프레스기 : 노동자들은 평생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네.

사장 : (씩씩거리며) 나 오늘부터 사장 안할래요. 공장이고 뭐고 문닫아 버리지 뭐!

밀링기 : 요 캄직한 놈 보겠나? 빨리 일손 안놀려-

사장 : (기계들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작업에 열심이다. 그러다가 행동이 점점 빨라져 돌아가는 컨베이어 속으로 달려 들어가 원통을 한바퀴돌아 납작한 오징어표 모양으로) 아악- 사람 살려요! (소파 위에서 몸부림을 치다 깨어난다. 이마의 땀을 닦으며) 휴- 꿈이었구나 실화인줄 알았네.

6. 작업장안

기계들 저마다 투덜거리고 있다

밀링기 : (롤러를 굴리며) 별 별종맞은 소릴 다 들었네. 기계덜 헛티 혼자 작업을 하라는 뱀이 워딧다?

그라인더 : 아까참의 사장말이 실화여? 그러니까 내 이 손으로 철판을 날려다 쪼개라는 거?

용접봉도 그라인더도 몽키스페너도 저마다 웅성웅성 불만투성이다)

몽키스페너 : 참말로 요렇게 되어서 기계사료를 쓸 수도 없구 성님들 요럴땐 워치키 해야 된다고요?

이 때 사장이 불쑥 나타난다.

사장 : 뭇들 하는거야? 너희들도 일안하면 기름도 안뵈고 전원도 안줄꺼야! 무노동무임금 머리속에 짹짹 박아놔!

지문 : 그 소리에 기계들은 저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조업을 시작했다. 작업끝은 가관이었다.

프레스기 : (철판을 끙끙거리고 드러 날라다 찍으며) 내 월급으로 생계는 고사하고 신경통 치료비도 어렵다구.

용접봉 : (허공을 훌훌 날라다니며 용접하면서) 땀통 생활 10년에 요런 일을 듣도 보도 못했구먼요.

달력이 몇장 드르륵 넘어간다.

지문 : 기계들의 작업에도 잔업철야는 만았다. 쥐꼬리 만큼 받는 한달 임금(기름)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휴일에 이교대 삼교대를 몽땅 뛰는 기계도 있었다. 헛헛거리며 노동을 하던 기계들 사이에서 서서히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밀링기 : 이게 뭐 고생이여! 벌써 밥통엔 녹이 슬기 시작했어.

프레스기 : 볼트 빠지게 일해도 최저생계비가 안 나오는군.

바이트 : '무노동 무임금'이라더니 이젠 솟제 '유노동 무임금'이잖아! 무노동 무임금 따질라든 '유노동 무임금'부터 거시기 해야지, 원칙 좋아하는 놈덜이 왜 지들부터 원칙을 안지켜?

용접기 : 노동자들이 왜 노조 만들고 파업했는지 이제 알겠어.

바이트 : 맞아! 우리덜도 거시기를 해야혀!

프레스기 : 자 이제부터 우리 기계들도 노동자들의 뜻에 동참하여 파업에 돌입합시다.

지문 : 기계들은 노동을 안하는 대신 전원도 받지 않고 기름도 먹지 않았다.

(기계들 팔짱끼고 버티고 있고 꼬르륵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다.)

이 때 사장 뛰어들어오며 얼굴이 누렇게 떠서

사장 : (애원조로) 기계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됩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제발 기름만은 잡수세요. (최신 자동화기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젠 수십억을 주고 외국에서 사들인건데...

자동화기계 : 당신이 입이 마르고 닳게 외쳐대던 무노동 무임금을 우리 기계들이 실천하고 있는 중이요.

사장 : 제발 이러시지 마세요. 이젠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여러분을 사들이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흑흑 (손등으로 눈물 훔쳐내며) 제발 기름만은 먹으세요!

바이트 : 싫으!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우린 노동을 안했으니께 거시기 안먹고 그냥 녹슬어 죽을꺼!

사장 : (손을 비비며 갖은 아양을 떨며) 그건 하찮은 노동자들 한테나 적용되는 것이고

여러분같이 고귀한 기계분들께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애김조, 예.

프레스기 : (기가 막히다는 듯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이 결국 노동자 가치가 기계 가치만도 못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원칙이구먼!

밀링기 : 저 심뽀에 공휴날 주는 임금이 아까워서 워지게 잠을 잤으니까? 따지고 보든 공휴일도 '무노동 무임금'이잖아?

바이트 : 그런 작자덜이 꼭 서양서 못된 것만 들어온단 말여. 임금 많이 주고 노동시간 적은 것은 썩빠고 무노동 무임금만 서양것 본받자는겨.

밀링기 : 불로소득하는 작것들이 썩고 썩는디 노동자덜만 '무노동 무임금' 허라는겨? 서양에 무임금무소득은 없나몰러.

바이트 : 관뉘 말이 필요없어. 전국 노동자들이 일 안허고 모조리 굶어 죽자고 나서야 되여. 즈이들이 먹고 살려고 기계를 잡아봐야 노동자들 귀한줄 알지. '다 죽으면 다 산다'는 말이 꼭 맞는 말이구먼.

지문 : 사장의 비굴한 모습에 분개한 기계들은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했는데 끝으로 프레스기가 점잖게 덧붙였다.

프레스기 : 어쨌든 이번 일로 우리 주인도 역시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동자들 없이는 작업이 안되니까 위장폐업 물리치고 전원 복직시킵시다.

기계들 : (입을 모아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우리덜은 기계답게! 노동자는 인간답게!

[두임 셋]

주로 창작품이다. 여성신문과 같은 지면에 적합한 콩트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한 회원들의 자유창작중 시나리오, 콘티, 그림까지 완성한 작품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미완성 작품도 다음번 작품집을 기약하며 포함했다.

* (기획안과 시나리오)	
-우리 가족은요...	김지나 134~136
* (시나리오) -자유작품	
-빨간모자와 오락실	김지나 137~145
-지장보살	박상배 146~154
-서울 손오공	박상배 155~158
-응급실 이야기	박상배 159~163
-단맛	박상배 164~168
-해후	유미숙 169~176
-도술천의 승천	장경희 177~204
-우리의 꿈	채덕신 205~220
-사람이 아니올시다, . . .	채덕신 221~235
-보람이의 하루	최해옥 236~238
-금니빨	백정숙 239~254
* (콘티)	
-사상누각	문예선 255
* (그림)	
-어머니, 이제 눈물을 거두세요	오영진 256~281
-봄은 이야기 그림마당	장희진 282~283

여성신문 기획안

김 지 나

* **가제** : 살며 생각하며, 생각하는 삶... 등등

* **기획 방향** : 주부의 눈에는 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아주 가깝게 보인다. 결코 교육적이지만은 않은 교육환경, 생활에서 부딪히는 환경문제, 가정을 싸고 도는 대사회 문제. 어찌보면 쉽게 지나쳐 버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잠깐이나마 되생각해보는 일은 생활을 알차게 꾸리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듯 싶다. 전형적인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기둥으로 꾸려지는 솔이네집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일상사를 그려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등장인물

- 1) 오지혜 : 서른 세살의 여주인공. 국민학교 교사이며 솔이의 엄마. 성격은 쾌활하고 덤벙거리는 편이나 생각이 많고 의협심이 강하다. 혼자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파트 분양으로 32평 상계동 아파트에 산다.
- 2) 박경수 : 기업체 차장. 가부장적 권위가 사라진 현대 가정의 일반적인 가장. 솔이 아빠, 진보적인 면도 있으나 종종 가부장적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한다. 자가운 전자.
- 3) 솔이 외할머니 : 무남독녀인 딸과 사는 일이 늘 찝찝하다. 봉건적인 사고에 익숙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애쓴다. 꼼꼼한 성격으로 이 집의 실질적인 살림꾼이다.
- 4) 솔이 : 오지혜의 외아들. 6살. 유치원에 다닌다. 외아들로 자란 탓에 독불장군이다.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려 드는 개구장이.

첫번째 이야기 : 우리 가족은요...

- # 1. 아침 7-8시경의 고층 아파트.
박 : 여보, 양말 새거 없어?
오 : 거기 서랍요.
- # 2. 식사준비중인 솔이 외할머니 보인다.
오 : 당신은 암튼.
- # 3. 솔이 외할머니 식탁을 준비한다.
외할머니 : 박서방 밥부터 들게나. 국 다 식겠어.
- # 4. 안방. 오, 박 둘다 출근 준비로 분주하다.

오, 박 : 예.

5. 잠옷 바람의 솔이 방문을 열고 나온다.

6.

솔 : (집안을 휘둘러 보며, 독자를 향해) 안녕하세요. 저 솔이에요. (안방 속을 바라본다)

7. 안방.

오 : (서랍을 뒤지며) 자요. 당신편 당신이 좀 챙겨 보세요.

8.

박 : (귀를 막으며 엄살을 피우듯) 어구어구 또 그놈의 잔소리...

9. 안방에 기대고 선 솔이 : 아침이면 늘 이렇게 바빠요. (화장대에 오의 얼굴이 보인다).

솔 : 올 엄마 예쁘죠? 앞동 경식이 형아가 그러는데 올엄마가 학교에서 제일 이쁜 선생님이래요.

10.

솔 : 엄마가 늘 바빠서 전 할머니가 돌봐주세요. 유치원도 데려다 주시고요.

11.

외할머니 : (안방으로 나서며) 아니, 이 사람들 밥 안 먹고... (솔이를 감싸안으며) 어이구 우리 강아지 쫓네.

12. 안겨 있는 솔이 얼굴 크로즈 옆

솔 :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내 고추가 제일 예쁘데요. 고추 달린 아들이 없어서 딸네 집에 얹혀 산다나 어쩐다나.

13. 오, 박. 부엌으로 가다 솔이와 할머니 부딪힌다.

14

박 : (솔이를 번쩍 안으며) 하, 우리 솔이 밤새 또 쫓네. 금방 아빠만해 지겠네

솔 : 아빤 회사일이 바빠서 맨날맨날 늦으시지만 큰 로봇도, 장난감도 제일 많이 사줘서 너무너무 좋아요.

15.

오 : (안긴 솔이에게 다가가며 뺨을 내민다) 솔아 아침인사.

16.

솔 : (엄마에게 뽀뽀한다)

17. 오, 박, 솔이 식탁에 앉고 할머니 식사를 돕는다.

18.

박 : 어머니 함께 드시죠.

19.

외할머니 : 어서 들기나 해. 난 이따 솔이랑 먹을 거야.

20. 밥을 먹는 박이 듣는다.

오 : 오늘 일찍 들어와요.

21.

박 : (의아한듯 고개를 든다)

- 오 : 며칠 전 부터 말했잖아요. 술이 외할아버지 제사요.
- # 22. 박 : 오늘 부서 회식있는데...
- # 23. 외할머니 : 박 서방, 바쁘면 그냥 일 보게. 우리끼리 그냥 간단하게 드리지 뭐.
(부엌을 나서며) 화분에 물 주는 걸 잊었네.
- # 24. 화초에 물을 준다. 약간 쓸쓸하다.
오 : 암튼, 당신은...
- # 25. 오, 박 : (현관을 나서며) 엄마 다녀올게요. 굴비랑 아빠 약주는 내가 사올게요.
- # 26. 외할머니 : 술아 우리도 밥먹고 유치원 준비해야지.
- # 27. 오, 박 나란히 출근하는 모습이 멀리 보인다. 술이 손을 흔든다.
술 : 이게 저희 가족 모두예요. 별루 재미있는 일도, 큰 사건도 없는 그냥 그런 술이네집을 여러분께서 엿보실 수 있을 거예요.
- * 술이 입을 통한 인물의 소개 때 장면은 사진의 컷처럼 정지하고 그 위에 술이의 이야기 지문으로 표현된다.

* 빨간모자와 오락실 *

김지나

* 등장인물 *

최성구 ; 국교 3학년. 맛벌이 노동자 가정의 외아들이며 막내.
우주비행사나 과학자가 꿈이다. 얌전한 편이며 평범하다.

최성미 ; 중 1. 성구의 누나.
오현태, 박영섭, 정만식 ; 성구의 친구들로서 개구장이이며, 성구에 비해 집안이 넉넉한 편이다.

그외 ; 3학년 6반 아이들 및 같은반 여자아이들
이찬주 ; 뚱뚱하고 명랑하다.

1. 타이틀이 썩지고 아이들이 바글거리는 오락실 전경이 그려진다.

(지문 ; 우리들의 꿈을 키워주는 건 문방구 간판을 단 전자오락실 놀이터는 몇개 좀 있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걸 백원짜리 동전 보다는 꿈이 더 필요한 세상이게 하고.)

2. 셋별 국민학교 하교 풍경.

(건물 현관. 성구와 친구들이 신발을 갈아 신는다.)

성구 ; (신발을 갈아신느라 구부린 현재의 어깨를 치며) 오현태, 정말이야?

현태 ; (성구를 올려다 본다)

성구 ; 컴퓨터?, 정말 컴퓨터 샀어?

영섭 ; 그래. 그래서 지금 현태네 가기로 했어. 같이 가자.

만식 ; 재네 삼촌이 사줬네. 근데 재네 삼촌이 컴퓨터 박사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성구 패거리와 신발 주머니를 던지며 혼자 노는 1학년 꼬마가 보인다.)

“장난감 기차가 뽕뽕 떠나간다. 파아자와 사아탕을 싣고서...”

세명의 여자아이 무릎에 고무줄을 로 삼각형꼴로 서 있고 다른 세명의 아이가 고무줄을 논다. 고무줄을 뛰는 아이중에 뚱뚱한 한 아이 (이찬주) 클로즈업된다.

“엄마 방에 이있는 우리엄마 하안테 가아따 주러 갑니다.”

영섭 ; 야. 저 뚱자 좀 봐. 킁킁...

현태 ; 재, 그래도 작년에 우리반 피구선수였어. 얼마나 공이 센지.

공포의 삼겹살이었는데니까.

(성구와 친구들. 고무줄하는 아이들과 가까이 온다.)

찬주 ; (혼자하는 한 아이에게) 성미야 니가 재꺼까지 살려.

성미 ; (연거꾸) “가아따 주러 갑니다. 장난감 기차가 뽕뽕...”

(이때 영섭이 짓궂게 삼각 고무줄 놀이 한복판으로 한쪽 고무줄을 슬쩍 들고 지나간다. 그뒤를 따라가는 성구와 남자아이들.)

영섭 ; 실례합니다양. . .

여자 1 ; 아니, 저게.

찬주 ; (옷소매를 걷으며) 야, 박영섭!

(뭇들은 척 지나간다.)

찬주 ; 재네들 자꾸 봐줬더니 안되겠어.

여자 2 ;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니?

여자 3 ; 으휴, 정말 너무해.

찬주 ; (서구네를 향해 뛰며) 야, 박영섭! 거기 서!

(여자 아이들 우르르 몰려간다)

영섭 ; 이크, 안되겠다.

(사내 아이들, 앞서서 뛰고 여자아이들은 뒤따라 댕다)

3. 현태네 집. 주택가에 있는 양옥집.

(대문이 보인다. 골목길을 걸으며)

성구 ; 야, 개네들 굉장하 잘 뛰더라.

만석 ; 어유, 죽는줄 알았어. 무슨 여자애들이 그렇게 잘 뛰냐?

(현태네 집 앞. 현태, 초인종을 누른다.)

인터폰 ; 누구세요?

현태 ; 엄마, 나.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며)

영섭 ; (마당의 개집을 보며) 이? 너네 뽀식이 어디갔니?

현태 ; 이모가 이쁘다구 가져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영섭, 성구, 만석 ; 안녕하세요.

현태모 ; 어, 너희들 왔구나.

(빨리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영섭, 만석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눈은 현태 방을 향한다. 성구는 낮설다.)

현태모 ; (성구를 쓰다듬으며) 넌 이름이 뭐니?

성구 ; 저, 최성구요.

현태모 ; 으음. 현태랑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

현태 ; 자, 이리 빨랑 들어와.

(현태방. 침대며, 책상, 책장, 등등 잘 갖추어져 있다.)

성구 ; (방안을 휘 둘러 보며, 마음속으로) 히야, 없는게 없네.

(컴퓨터 쪽으로 가며) 이거구나.

현태 ; 나, 컴퓨터 학원 다녔잖아.

영섭 ; 그래도 어렵겠는데. . .

만석 ; 나도 아빠가 공부 잘하면 크리스마스 때 이거 사준댔어.

근태 얼마야?

현태 ; 잘 몰라. 삼촌이 일본에서 사왔어.

만석 ; 그럼, 이거 뭐 할때 써? 게임도 들어 있어?

현태 ; 공부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해.

성구 ; 프로그램이 뭐야?

현태 ; 건 나두 잘 몰라. 내가 좀더 크면 삼촌이 가르쳐 준댔어

만석 ; 어디 한번 켜 봐.

현태 ; (의자에 앉으며) 과학자가 되려면 이런 거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댔어. 자, 봐. 먼저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고.

성구 ; (속으로) 나두 과학자가 꿈인데. . .

(아이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현태와 컴퓨터 화면이 번갈아 보인다. 당황하는 현태. 똑같은 화면이 자꾸 반복된다.)

현태 ; 어어?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만석, 영섭 ; 치, 그럴줄 알았어, 재미없다, 그만해.

성구 ; (자세히 보며) 다시 한번 잘 해봐. 뭐가 나오는 지 보구 싶어.

현태 ; (자신없는 표정으로) 알았어. 근태 끝때도 방법이 있단말야.

(현태, 끔끔거리고 성구는 계속 주의깊게 본다. 만석, 영섭. 게임기 앞으로 간다.)

만석 ; 피, 썩이 겨우 이것밖에 없어. (영섭을 보며) 난 몇개줄 알아?

영섭 ; 몇개데?

만석 ; (게임기를 틀며) 야, 슈퍼마리오 하자.

영섭 ; 몇개나니까?

만석 ; (게임을 하며) 오십 개.

영섭 ; (다가오는 현태를 향해) 재, 글썽 지네 집에 썩이 오십개란다.

현태 ; 피, 뻘해. 뽕이야.

성구 ; (게임 구경을 하며) 슈퍼마리오구나. (마리오가 위험에 처한다) 어, 왼쪽으로 피해.

현태모 ; (과자들을 내오며) 조금만 더 놀고 집에 가서 숙제하기다

영섭, 성구 ; 예.

현태 ; (과자를 먹으며) 야, 우리 누가 점수 제일 많이 내나 시험 할래?

(게임 화면안. 마리오가 죽는다.)

만석 ; (과자 앞으로) 잘 안되네.

영섭 ; 현태가 게임기로 시험하게.

만석 ; 뭘로? 보글보글? 킹 벌룬? 아니 그거 말고 88켈러그 하자.

현태 ; 좋아.

영섭 ; 난 슈퍼마리오를 더 잘 하는데.

현태 ; 그냥 그거 하자. 응?

영섭 ; 알았어.

성구 ; 난 빠질래. 집때 만석이네서 딱 한번 해봤단 말야.

만석 ; 너 그때 잘했잖아. 그냥 해.

(게임 시험이 시작된다. 게임기 화면이 보인다. 현태 차례다. 연속적으로 게임의 진행이 그려진다. 위기 상황이다. 위기를 모면하는가 싶더니 폭발하는 비행기.)

만석 ; (자신있는 표정으로) 오현태, 8천 6백점.

현태 ; 딱 한번만, 응? 나 보통 반점은 넘는단 말야.

영섭 ; 안돼. 숙제도 많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걸려.

만석 ; 그러다 집때처럼 니네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

영섭; 차, 2번타자 나가신다.
(영섭 모습 잠깐 그려주고 비행기가 폭발했을 때의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그리고, 만석의 게임모습 그린다. 게임을 잘하는 만석. 다른 아이보다 오래 장면을 잡아줌으로써 만석의 능숙한 솜씨를 돋보이게 한다. 2만점에 육박해가는 만석.)

현태; 완전 귀신이네, 귀신.

영섭; 괜 집에서 오락만 하나?

(만석의 마지막 비행기 폭발한다.)

만석; (힘이 들었는지 팔을 운동시키며) 휴. . .

영섭; 1만9천2백. . . 조금만 더했으면 2만점 넘는데. . .

현태; 완전 캡이네.

만석; 아냐. 성구해야지.

영섭; 야. 니가 1등이야. 하나하나 뻘해.

현태; 그래두 성구도 해야 돼.

성구; 아냐, 나 안할래. 잘 못해.

만석; 그때 잘했잖아. 그냥 해봐. 재밌어.

(성구, 자신없어하며 한다. 역시 조금있다가 게임오버된다. 성구의 얼굴이 어둡다.)

#4. 성구네 동네 골목길

(성구, 시무룩해서 걸어가고 있다.)

성구; (빈 강동을 차며) 에잇.

(근처 담벼락에 오줌을 누던 강아지가 맞았다. “개갱 개갱갱, 개갱 개갱갱”)

성구; (혼자말로) 치, 판애들은 컴퓨터두 있구 게임기두 다 있는데 치, 난 오락실두 못가게 하고.

(저 앞에 강아지 엄마로 보이는 개가 성구를 노려보고 있다. 쾅 쾅 짖더니 달려든다.)

성구; 엄마야.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현관에 들어서서 성구.)

성구; 으휴. . . 재수없어. (가방을 집어 던지며)

성미; (책상 위에서 뒤돌아보며) 야, 왜 그래?

성구; 몰라, 씨. . .

#5. 늦은 밤이다. 밖에서 성구의 방 창을 비춘다.

(방안에서 곤하게 자고 있는 성구의 모습이 보인다. 성구의 꿈의 세계로 연결된다. 우주의 다른 별세계에서 두리번거리는 성구.

공상과학에나 나오직한 한 도시이다.)

성구; (몹시 놀란 눈으로) 어?. . . 대체 여기가 어디지?

(도시 곳곳에 상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 중임을 알 수 있다.

상공에 전투기로 보이는 비행물질이 저편에서 점점 가까워온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한다.)

성구; 우주의 악당들인가봐. 근데 평화 수비대가 보이지 않아. .

(이때, 바위산 한가운데가 열리며 터널이 나타나더니 전투기 몇대가 나온다.)

성구; 허야! 저건 틀림없이 솔라 원투쓰리야!

(조종기 안의 비행사들 잠시 준비점검을 한다.

“여기는 솔라원 전투태세 완비.”

“여기는 솔라투 전투태세 완비.”

“여기는 솔라쓰리 전투태세 완비.”)

성구; (몹시 놀라며) 어, 재네들은. 그래, 현태, 만석이, 영섭이야!

(터널 속에서부터 마이크소리 들려온다. “잠시 후 전원 출동한다. 원, 투, 쓰리. . .)

성구; (전투기 앞에 나서며) 저 잠깐, 잠깐만요!

현태; (솔라 원) 최성구, 너 성구지?

성구; 그래. 와~니들 증말 멋있다. 어떻게 된거야?

만석; 너야말로 왜 그러고 있니? 오크성 악당들이 우리 별을 공격해 들어왔어. 만일 방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별도 저놈들 손에 들어가고 말거야!

영섭;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돼.

성구; (어리둥절 하지만 들뜬 표정으로) 어디로, 어디로 가야지 나 두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거니? 응?

영섭; (방금나온 바위산의 터널을 가리키며) 저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하나 있어. 거기서 지원자들에게 전투복과 전투기를 지급할 거야.

(마이크소리, “솔라 원 투 쓰리 즉시 출발하기 바란다.”)

(성구, 터널 속으로 달려간다. 그 안의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꿈쩍않고 열리지 않는다. 계속 안열리자 온몸을 날려 문을 부딪히자 문이 벌컥 열리며 깊은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성구, 추락한다 “아아아악. . .” 비명과 함께 꿈에서 깨어나는 성구.)

성구; (식은 땀을 흘리며) 휴. . . 꿈이었나 봐.

#6. 셋별국민학교 전경.

(3-6반 펫말이 보인다. 그 복도의 창을 통해 교실 안을 엿본다. 수업 설명중인 교사가 보인다.)

교사; 자, 오늘은 일기쓰기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교사의 설명중임에도 멍하게 판생각에 빠진 성구.)

성구; (속으로) 난 정말 너무 재수없게, 으휴 증말 그때 떨어질게 뭐난 말야. 아무리 꿈이라지만. . .

교사; 먼저 일기 쓸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상철아, 상철인 일기 쓰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지?

상철; 그날 하룻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요.

교사; 그래요. 잘 대답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일이 가장 인상에 남는가를 정리해보는 게 제일 먼저 할일이예요. 또 다른 친구, 만석이, 만석이는 어떻게?

만석; (자신없게 일어선다.) 전요, 사실은요, 일기쓰기 전예요, 막 졸려요. . .

(아이들, 만석의 대답에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성구는 여전히 따라 웃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그린다.)

교사; (미소지으며) 그건 그래요. 특히 너무 늦게까지 놀다가 늦게

일기쓰는 친구들은 정말 그럴꺼예요. 이렇게 줄리면 그냥 자야할까요? 아니면 참고 일기를 마저 써야 할까요?

아이들; 참고 써야되요.

교사; 그건 왜죠? 일기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일까요? 박찬주, 어디 대답 해볼까?

찬주; 그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면 다음엔 또 그런 잘못을 안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요.

교사; 잘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일기쓰기의 목적이 되는거예요. (성구, 여전히 그림에 열중해 있다.)

교사; 자, 그럼 모두 32쪽을 펴세요. 누가 읽어볼까? (아이들, 저마다 "저요, 저요," 하며 손을 든다.)

교사; 현아가 읽어볼까?

(현아, 일어서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 . "일. 기. 일기란 하룻동안에 있었던 일을. . ." 교사가 책을 든채 책상 사이를 지나다니는 성구가 있는 중에 교사가 서있다. 성구의 짝꿍은 로보트 그리기에 열중한 성구를 쿡쿡 찌른다.)

성구 짝꿍; (낮은 소리로) 아, 선생님. . .

(후다닥 연습장을 감추고 책을 펴든 성구. . . "어디야? 어디?" 잠시후 수업 끝을 아리는 벨소리 들린다. 교실은 몹시 시끄럽다. 공기를 꺼내는 여자아이, 서로를 불러대는 고함들. . . 등등. 성구는 다시 연습장을 꺼내 로보트를 꺼내 계속 그린다. 뒷자리의 만석이 성구의 그림을 보며.)

만석; 아, 그건 못보던 로보트네.

성구; 내가 특별히 만든 거야. 내가 앞으로 탈 미래의 전투기야. 대빵 멋있지? 응? 여기 이 구멍 있지? 여기서 레이저 광선이 발사되는거구. . . .

(떠들썩한 교실 안. 성구와 만석의 뒷모습에서 화면이 멈춘다)

#7. 같은날 하교길.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 앞에, 걷고 있는 성구와 만석의 뒷모습이 보인다.)

성구; 만석아, 우리 오락 딱 한번만 하구 가자, 응?

만석; 안돼. 나 집때 엄마한테 걸려서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어휴, 지금 생각해도 으시시하다.

성구; 너 라이덴 해봤어? 진짜 우주전쟁하는 기분인 거 있지?

만석; 나두 해봤다. 치~ (어느새 오락실 앞이 거의 다 왔다.)

성구; (웃소매를 잡으며) 만석아, 딱 한번만 응? 하기 싫으면 그냥 보기만 해.

만석; 안된대니까, 우리 엄마가 오락실에는 저질 형들이 많다고 그랬어. 깡패들이 돈두 뜯고 그런다고 했단말야.

성구; 웃기지 마. 난 그런 형아들 한번도 못봤다. 치, 관뉘라, 관뉘.

만석; (골목길에 접어들며) 나 그럼 간다. 안녕.

성구; 피, 의리없다, 의리없어!

(잠시 머뭇거리다 그 오락실은 그냥 지나친다. 혼자 걷고 있는 성구.)

성구; (터덜대고 걸으며, 혼잣말로) 집에 가봤자 성미 누나도 아직 안왔을거구, 찬민네 형두 오늘은 늦게 끝났겠지. (빈집을 떠 올리며) 부업엔 또 식은 밥밖에 없을꺼야.

(저기 다른 오락실이 보인다. 주머니를 폼지락거리며.)

성구; (속으로) 이 5백원, 오늘이랑, 내일이랑 빵 사먹으라고 엄마가 준 건데. . . 딱 두 판만 하는 거야.

안돼, 집때 엄마랑 오락 다신 안한다고 약속했잖아!

치, 오락기도 하나 안사줘 놓고 오락실도 못가게 하고. 치,

엄마가 나뉘어.

성구; (오락실 안을 기웃거리며) 딱 두번만 하구 가지 뭐.

#8. 오락실 안.

(성구가 오락하는 다른 아이들을 서서 구경한다. 두 아이가 라이덴은 열심히 한다. 잠시 후 동전 교환대로 가서 오백원짜리를 백원짜리로 바꿔온다. 두 아이가 여전히 오락중이다. 화던 속은 더더욱 복잡해져서 두 아이의 전투기가 위협에 빠져있다.)

아이1; 야, 폭탄, 폭탄 써!

아이2; 폭탄 없. 이크, 광, 음!

(아이1은 계속한다.)

아이2; 니가 말 시켜서 죽었잖아.

(아이1 역시 금방 죽고 두 아이가 일어서며 "오늘은 되게 안되지, 응? 오만점두 안돼.")

성구는 의자에 앉으며 동전을 넣고 2백원은 오락기 위에 올려 놓는다. 성구의 표정과 화면을 왔다갔다 잡으면서 오락에 몰두해 있는 성구를 그린다. 동전을 다시 넣는 모습을 반복하고, 주머니를 뒤적여 나머지 동전을 찾는다. 이때 옆자리에 슬그머니 빨간 모자를 쓴 중1쯤 돼 보이는 아이가 참견하며 앉는다.)

빨간모자;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아랑곳 않고 돈을 넣는 성구. 그것마저 곧 죽어버린다.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한푼도 없다.)

빨간모자; 야, 이 형님이 하는 거 잘 봐.

(어려운 장면을 잘 모면하는 오락솜씨를 통해 그의 노련함을 보여준다. 성구, 마음 속으로 "완전 오락 귀신이다. . .")

빨간모자는 한주먹되는 동전을 오락기 위에 내놓으며 또다른 손으로는 성구쪽 구멍에 동전을 넣는다. 성구는 어리둥절하다.)

빨간모자; 해, 입마.

(여전히 성구는 의아하다.)

빨간모자; (성구 자리의 버튼을 누르며) 야야, 비행기 나왔잖아, 하래두.

(빨간모자와 성구는 오락에 빠져있다. 미숙한 성구는 자꾸 오락기 위의 동전으로 손이 간다. 게임을 코치하는 빨간 모자.)

빨간모자; 야, 야, 그거 먹어.

이번엔 오른쪽으로 피해, 그렇지!

광~!

또해, 괜찮아.

(열중해 있는 성구의 얼굴과 화면을 반복해서 그려준다. 그러다가 오락기의 화면이 확대되면서 게임의 전투기 조종석에 성구가 앉아 있다. 자신이 직접 조종하는 환각적인 상태의 그림을 통해 성구의 오락에의 탐닉을 강조한다. 환상속의 전투는 점점 복잡해지고 드디어 성구가 탄 전투기가 폭발한다.)

성구; 으악!

빨간모자; 어쨌든, 이젠 제법인데.

(성구 게임이 끝나서 밖을 내다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성구; (허겁지겁 일어나며) 어! 엄마 왔겠다.

빨간모자; 같이 가야지 임마. 의리없게. . .

성구; (다시 앉아서 빨간모자를 보며 혼잣말로) 휴, 엄마한테 혼날 거야. . . 어떡하지!

빨간모자; (시들하다는 듯 게임을 그만두며) 나가자. 너 몇학년이냐?

성구; 3학년이요.

(오락실 밖. 다른 골목 앞.)

성구; 저. . . 고맙습니다. 갈게요. 너무 늦어서. . .

빨간모자; (성구의 어깨를 감싸며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며) 야마, 오늘 얼마치 한줄 알아? 3천원어치야, 짜샤.

(집에 질러 있는 성구.)

빨간모자; 그 돈 어디서 났는 줄 알아? 오늘 학교에서 쓱싹한 거야 임마.

성구; 잘못했어요. 그냥 형이 하라구해서. . .

빨간모자; 뭘 잘못해, 짜샤. 훔친돈 너두 썼으니까, 너두 도둑새끼지.

성구;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아니데. . .

빨간모자; 이빨 깔겨 없구. 내일 일루 3천원 가져오면 돼, 알았어?

성구; 3천원이요? 그걸 어디서. . .

빨간모자; (주먹으로 머리를 한대 치며) 가져오라면 가져와, 임마. 안가져오면 너, 알지? (주먹을 내보이며)

성구; 아. . . 알았어요. . .

빨간모자; (성구의 어깨를 툭치며) 겁먹지 마, 짜샤.

(빨간모자가 먼저 가고, 잠시후 어두운 곳에 서서 성구는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계속]

뒷이야기

3학년6반의 여자아이들과 (이찬주 중심) 남자아이들이 (박영섭 중심) 한바탕 싸운다. 2층에서 영섭이가 찬주를 향해 침을 뱉었고

그 복수로 찬주가 영섭의 도시락을 감춘게 발단이 되었다. 이와중에도 성구는 온종일 시무룩하다. 3천원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멀리 길을 돌아서 집에 돈다. 집에서 밥을 못먹고 근심만 한다. 그날 밤, 성구는 무서운 꿈을 꾸다. 신나게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 귀신이 나올 것처럼 괴괴한 오락실에 사람이 없었다. 둘러보니 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앉아 있어서 도움을 청하고 보니 모자 밑의 얼굴이 해고 바가지였다.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나는 성구.

그 다음날 역시 그 문제로 심란해하는데 미술시간에 우연히 앞자리에 앉은 현태의 서랍속에서 우유값으로 가져온 돈이 보였고 성구는 무의식중에 돈을 훔친다. 그것을 목격하는 이찬주. 그러나 성구는 막상 돈을 들고 어쩔줄 몰라서 그날도 결국 먼길을 돌아 집에 간다. 그 다음날, 찬주로부터 짤막한 편지가 온다. 쉬는 시간에 찬주에게 모든것을 털어놓자, 찬주는 방과 후에 친한 친구들과 의논하자고 한다.

찬주와 영섭, 만석, 현태 등은 모여서 작당을 한다. 결국 찬주의 사촌오빠의 (고등학생) 힘을 이용해 빨간모자를 혼내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도 더욱 우정이 깊어진다.

제목 : 지 장 보 살

박 상 배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가셨다는 지장보살이 염원이 삶의 이정표였던 그때에, 그것을 나의 현실과 현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접할 벽에 딱 막혀 더 이상 헤쳐가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되어 삶의 올바른 목표를 정하지 못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죽여가며 관념의 굴레 속을 허덕이며 살고 있었다.

배경 : 1984년 여름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조그만 읍 소재지

나오는 사람 : 신경수(도사), 경아(창녀), 유중민(절에서 만난 사람), 김종철(선배)

광진, 상철, 봉건, 황달, 그외 사람들1,2

1

의식의 탈출구를 찾지 못해 헤메이던 그 시기 나에겐 푸른 들판 위에서 서로 버그적재는 4개의 돌조각들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광진 : 「이런 지미 다마 5백이면 쿠션 정도는 맛세이로 보여 줘야지」
 「상철아 났다. 야! 신도사 뭘 그렇게 맨날 생각하나? 한 게임하자」
 황달 : 「놀면 뭐 하나. 한푼이라도 벌어야지. 잇쭈아리 그만두고 나인볼이나 치자」
 봉건 : 「형! 사람도 5명이나 되는데 짝이나 하지」
 광진 : 「그래 멤버 짝 찾는데... 신도사까지 6명이네」
 황달 : 「신도사? 쟀 그지야. 재가 돈 있는거 봤나?」
 광진 : 「야 상철아! 뒷방 비었지?」
 상철 : 「예 어제 하던것 그대로 있어요」
 광진 : 「들어가자」

2, 놀음방.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5명이 모여 앉아 포카를 하고 신도사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한 쪽에 누워 있다.

사람1 : 「핀」
 사람2 : 「핀 콜」
 황달 : 「핀콜 좋아하네. 핀 받고 5만. 남의 카드 불러면 돈 내고봐!」
 봉건 : 「지이미 뻘다. 키워놓고 남 좋은 일 시키네. 난 죽었어」
 광진 : 「왜 이리 광분을 해. 5만 받고 10만 더」
 사람1 : 「얼씨구 엄마 뻘스들을 입고 왔나. 막판에 꺾발 올리네. 나 두 댕었어」
 사람2 : 「나두 죽었어」
 황달 : 「저게 암만봐두 풀러신데 선수한테 뺨끼치나? 10만 받고 10만 더」
 봉건 : 「뭘야! 겁 잡았나본데. 아주 설것이를 해라」
 광진 : 「그래 10만 받았어! 뭘야?」
 황달 : 「쟈니집이다. 너 플러시지?」
 사람1 : 「뭘야? 6포카잡아!」
 사람2 : 「아이구 황달 물 먹었네」
 황달 : 「이런 지미! 짱박구 있다가 뻘어? 돈없어! 판 걷어!」
 광진 : 「야 벌써 2신데 간단하게 해장하고 뭉이나 풀러가자」

3, 창녀촌, 새벽4시. 인적도 끊기고 길에 나와있는 아가씨들도 없고 전주집, 고향집 등 간판만 보인다.

창녀1 : 「어머! 광진이 아저씨 오늘은 늦었네. 이 아저씨 찜보는 아저씨인데 잘 생겼다. 꼭 연속극 나오는 도사같애」
 광진 : 「너 어떻게 알았나. 쟀 진짜 도사야」
 창녀1 : 「어머 그래요?」
 광진 : 「돈없이 사니까 도사지」
 창녀1 : 「그게 도산가 그지지. 근데 씹질에는 도사고 대사고 없드라」
 광진 : 「야 야 개소리 집어 치우고 어디로 들어갈까?」
 (도사를 가리키며) 「엔 잘 모셔야 돼! 어려운 놈이니까」
 창녀1 : 「알았어, 광진이 아저씨는 내 방으로 가고 저 도사님은 경아 방에 가있어」
 광진 : (방앞에서) 「신도사! 나 여기서 점심먹고 갈 것이니 너도 꼭 자라. 그러구 걱정 되면 장화 신고해 재미 많이 봐라」
 말로만 듣던 창녀촌. 지구 저 쪽 건너편 세상같이 생각되었던 곳. 거기에 지금 내가 누워 있다. 왜?
 경아 : (문이 열리고 겨아란 아가씨가 물수건을 가지고 들어온다) 「아저씨 뭘해 옷 벗고 누워야지. 빨리 벗어! 내가 닦아 줄게」
 신도사 : 「아가씨 고향이 전라돈가 보지. 억양이 그러네」
 경아 : (무표정하게) 「응, 광주. 근데 아저씨 정말 돈없이 살어?」
 신도사 : 「그래」

경아 : 「어머 나두 그런 재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신도사: 「아가씨 왜 이리데 있지?」

경아 : 「도사님이 그것도 모르나? 왜긴 왜야 오입질이 좋아서지」

신도사: 「그래! 얼마나 좋은데?」

경아 : 「이 아저씨 농담도 못해! 아, 피곤해 빨리 벗어요」

신도사: 「우리 얘기 좀 하자! 아가씨 몇 살이야?」

경아 : 「이 아저씨 학교 선생인가? 흥신소 직원인가? 뭐 그리 궁금한게 많아요? 아저씨 이리데 천 오지? 천 오는 사람들은 그런거 많이 물어 보더라」

신도사: 「그래 난 아가씨와 나의 만남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해. 처음 만나 는 사립이니까 궁금한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 않겠어?」

경아 :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이 아저씨 진짜 도사같은 말씀하시네! 아저씨 빵 사먹을 때 뭐 주고사? 돈 주고 사지. 아저씨 빵사서 이젠 누가 만들었을까? 어디서 만들었 을까? 어떻게 내 손에 들어 왔을까? 이따거 생각하고 먹어? 그냥 아무 생각없이 먹 잤아? 나두 돈주고 아저씨가 샀잖아. 이제 먹기만 하면 돼」

신도사: 「그렇지만」

경아 : 「(말을 끊으며) 「아저씨 여기 왜 왔어? 궁금해서? 남들이 가자니까 억지로? 하긴 오는 사람마다 많은 핑계를 대드라마 근본적으론 다 똑 같은거 아냐?」

「아! 피곤해. 할거야 안할거야? 할거면 빨리빨리 해! 아저씨 장화 신을거야?」

신도사: 「장화?」

경아 : 「콘돔 낄거냐구?」

4. 신경수의 방에서 신경수가 누워있다.

빌어먹을! 인간도 돈주고 사고 파는 세상.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의 가치 보다 더 중요해. 나에게 무소유의 개념은 무언가? 돈없이 사는 것? 또 시작이군! 결말도 나지 않는 생각. 젠장할 당구장이나 가자.

당구장 앞 길거리에서 종철이를 만난다

신경수: 「어, 종철이 형! 휴가야?」

종철 : 「그래 신도사. 요샌 어떻게 지내야?」

신경수: 「맨날 그렇지 뭐」

종철 : 「요새도 매일 그것이나. 빨리 정신 차려야지. 젊은 놈들이 일 할 생각은 안하고 맨 노름하고 당구만...」

신경수: 「형은 공장 생활 할만하우」

종철 : 「그래, 처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할수없이 했는데 좀 지나니까 꼭 그런것도 아니더라」

신경수: 「그럼 뭐야?」

종철 : 「글쎄 뭐랄까? 내가 좋아하는 철학 같은거라고나 할까?」

신경수: 「돈버는데도 철학이 필요해. 하긴 작년에 산에 있었을 때도 비슷한 얘기 들은

적이 있지. 잠시 잊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그때는 몹시 충격적이었는데」

종수 : 「난 내가 감탄할마치 어려운 애긴 모르고... 열심히 살면서 배워야 되겠지」

「이따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자」

신경수: 「그래 형네집으로 갈게」

5. 당구장으로 신경수가 들어선다. 광진이가 당구를 치고 있다.

광진 : 「야! 신도사. 언제 사라졌어? 일어나니까 없네」

신경수: 「깨우지 말라고 해서 그냥 왔어」

광진 : 「야 신도사! 네 물건이 얼마나 좋길래 그 아가씨가 단번에 반하냐」

신경수: 「무슨 소리야」

광진 : 「꼭 한번 또 오라구 전해달라더라. 넌 그지니까 돈 없으면 그냥 오래」

사람1 : 「야! 신도사. 한번 꺼내봐라 얼마나 끝내 주길래 공짜로 준대. 재가 도사 도사 하더니 씌도사야」

사람2 : 「참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고 당구나 칩시다」

6. 종철이 방에 신경수와 종철이가 술상을 놓고 앉아 술을 먹고 있다

신경수: 「휴가는 언제 까지유?」

종철 : 「이번주 일요일」

신경수: 「휴가비는 많이 탔수?」

종철 : 「휴가비? 야 열 받는다. 술이나 들자」

종철 : 「뭐 불황이라나. 회사가 힘드니까 이럴 땐 노사가 합심해서 이겨야 된다나. 이 번만 잘 넘기고 경기가 좋아지면 추석 보너스를 듬뿍준대나 어떤대나

신경수: 「됐네!」

종철 : 「되긴 뭐가 돼! 작년에는 안 그랬는줄 아냐. 남들 100%씩 주는데 50% 밖에 안줬 으면서, 근거를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누군 못해. 노동조합이 있어야 해!」

신경수: 「노동조합이 없수?」

종철 :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된다고... 설사 있다고 해도 대부분 어용이지. 야! 야! 속터진다. 술이나 들자. 근데 넌 요새도 책 많이 보냐?」

신경수: 「아니 요새는 통 못봐」

종철 : 「왜?」

신경수: 「글쎄, 모르겠어.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그걸 모르겠어. 뭔 가 근본적인 것이 해결 안되고 다른데서 빙빙 겹도는것 같아」

종철 : 「요새도 불교철학에 관한 책들을 주로 봤나?」

신경수: 「주중은 그거구 요샌 좀 박혀서 기독교에 관한 책이나 소설도 좀 봤어요」

종철 : 「글쎄 왜 그럴까? 그거 혹시 한가지 경향의 책만 일방적으로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니냐?」

신경수: 「그렇지도 모르지」

종철 : 「가만 있어봐. 이거 우리 공장에 있는 사람이 준건데 가져다 봐라. 좋은 애긴거 같은데 난 좀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더라」

신경수: 「요샌 집에 있는 책도 안보는데...」

종철 : 「갖다 놓고 시간날 때 보면 되잖아」

신경수: 「그래 그렇게. 형 나 그만 가볼께」

종철 : 「잘 살펴가」

7. 저녁 늦은 시간의 창녀촌. 여기저기서 손님 호객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창녀1: 「아저씨 놀다 가세요! 잘해줄께 응」

창녀2: 「돈 없어도 돼. 사람이 돈으로 사나 정으로 살지! 놀다가 응」

군인: 「포주 나오라구 그래」

포주: 「뭐야! 뭔데 이리 시끄러워. 장사도 못하게」

군인: 「저 씨발년이 2중을 받는지 3중을 받는지 초저녁에 한번하고 기어 나가더니 지금 까지 안들어 오잖아. 돈도로 줘」

포주: 「아이 그런건 아저씨가 이해 해야지. 이 바닥에 침 오셨나. 손님은 많고 애들은 딸리고 어떻게. 좀 나눠 먹어야지」

창녀: 「야 새끼야! 돈 만원 내고 한번 했으면 됐지. 1박 2일로 끼고 살라고 그랬냐?」

군인: 「그래 이년아! 밤새 끼고 잘라고 그랬다. 한번 할거면 숯타임으로 하지 내가 열댓 다고 긴밤 값을 다 내냐? 이 씨발년아 개소리말고 돈 도루줘!」

포주: 「별 개구녕같은 자식 다 보겠네. 이 장사 10년에 원 더러워서. 야! 성애야 그 자식 한번 했으니까 타임 값때고 2만원 내 줘. 야! 순자야 소금 한 바가지 갖구와라! 재수가 없을래니까! 퇴퇴퇴!」

신경수 먼저번에 갔던 집에 들어 선다. 손에는 책 2권을 들고

창녀: 「어머 이 아저씨 또 왔어! 경아 방에 있어요. 들어가 봐요」

경아: 「(노크 소리에) 「네 들어 오세요. 어머! 도사님 이리 앉으세요」

신경수: 「나보고 꼭 오라고 했다면서? 왜?」 (책을 방바닥에 놓는다)

경아: 「난 거지가 아니네요. 아무런 댓가없이 공짜로 돈을 받지 않아요」

신경수: 「직업 정신이 투철하군. 아니면 자의식이 강하던가」

경아: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 돈을 도루 가져가던가 한번 하고 가던가 선택을 하세요」

신경수: 「둘 다 싫으면」

경아: 「그럼 내가 술 한잔 살께요」

신경수: 「그래 그건 좋다. 술 한잔 하면서 나하고 얘기나 좀 하자」

술상이 차려진다

경아: 「이런데 있는 아가씨들은 정에 약해요. 나 사실은 아저씨가 첫 눈에 맘에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뻘한 놈일거다 라고 생각 했었지요. 그런 일 많거든요. 아가씨

들은 정주고 몸주고 돈도 주고 다 바치는데 실컷 놀다 싫증나면 훌쩍 가버리는 그런 놈들 이 바닥에선 비밀비재해요」

신경수: 「그래 나는 걱정 없는데」

경아: 「왜요?」

신경수: 「나는 훌쩍 떠날 때가 없으니까」

경아: 「아저씨는?」

신경수: 「근데 아가씨, 아참 경아라고 했지. 경아는 왜 이런데 있지」

경아: 「100만원씩 주는 공장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요. 그런데 있어요? 한달 빼 빠지게 일해도 67,000원 그걸 가지고 동생 학비에, 엄마 약값에, 집안 생활비를 어떻게 당해요」

신경수: 「공장에도 다녀 봤나보지?」

경아: 「네, 고등학교 중퇴하고 바로... 이래봐도 학창시절 내가 그랬던 내 인생의 그림속엔 동화 같은 풍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신경수: 「꿈이 뭐였는데?」

경아: 「꿈은 무슨 꿈! 죽으려고도 생각 했었지만 죽기 보다는 사는게 더 쉽고 이놈의 세상은 몸뚱아리만 있으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신경수: 「그렇지! 여자가 살기엔...」

경아: 「한번은 사장님한테 통사정을 했었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그러니 30만원만 가불해 달라고...」

신경수: 「그랬더니?」

경아: 「그랬더니 돈이 철철 넘쳐 길바닥에 질질 뿌리고 다니는 놈이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등, 나도 젊었을 때는 고생했다는 등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 놓더니 웅큼한 눈길로 자기 말만 잘 들으면 그냥도 줄 수 있다나요.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어떻게요. 돈은 급하고 눈구녕을 씻고 봐도 돈 구할데는 없고...」

신경수: 「그래서?」

경아: 「그래서는 무슨 얼어 죽을 그래서예요. 술이나 마셔요. 지루하죠. 재미있는 애기 해 줄께요」

신경수: 「그래」

경아: 「간혹 가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지가 뭐 변강쇠 동생이라도 되는줄 아는 모양으로 다 끝나고 좋았어? 하고 묻는 사람들. 우리가 뭐 씹질에 환장해서 이 바닥에 있는 줄 아는 모양이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첫째 돈만주고 안하는 사람. 이런 사라마은 없으니까. 아저씨만 빼고. 둘째 조루 호호호」

신경수: 「요새 인신매매가 유행이든데 여기에는 인신매매 당해온 아가씨는 없나?」

경아: 「인신매매? 그렇게 끌려온 애들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애들과 우리들이 다른 점이 도대체 뭐지요? 단지 다르다면 그애들은 사람의 손에 잡혀오고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대가 없어서 돈에 잡혀온 것 밖에」

신경수: 「글쎄? 강제적이고 자발적인 것의 차이가 아닐까?」
 경아 : 「자발적이요? 나는 뭐 오입에 환장해서 이놈 저놈에게 밑구녕 주는줄 알아요?」
 신경수: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다. 너무 화내지 마라. 인간은 누구나가 평등하고 존엄한건데...」
 경아 : 「평등하다구요?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죠. 하지만 어떤 년은 재벌 회장한테 밑구녕 한 번주고 아파트 한채도 아닌 한 동씩 챙기는데 어떤 년은 아파트 한 채는 커녕 아파트에 붙어 있는 싱크대 문짝 하나도 사기 어려운데 이래도 평등해요? 오 뉴월 개새끼 얼어죽을 일이지. 아저씨도 돈 있어봐. 그런데 오나. 금테 두른년들 찾아 다니지. 하여간 돈이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평등하지 못해. 60층 빌딩 주인하고 다리 밑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 인간의 존엄성 그것도 다 돈 있는 사람 얘기야. 배 고파봐. 존엄이고 나발이고 있나!」
 신경수: 「...」
 경아 : 「어머 내가 너무 흥분했나. 술 한잔 해요.」(바닥에 놓여있는 책을 보며) 「아저씨 공부 많이 하나보다. 이건 무슨 책이에요?」
 신경수: 「몰라. 선배가 준건데 제목도 안봤다. 너 책 좋아하면 너나 봐라」
 경아 : 「책 표지를 보며」 「어디?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이게 무슨 책이야?」
 신경수: 「뭐? 이리줘봐」

8, 신경수가 몇개월 전에 집에서 유중민 씨와의 대화를 회상하는 장면 (책의 표지를 보며)

유중민: 「신형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신경수: 「무슨 말씀을」
 유중민: 「책도 많이 읽고 한번 가부좌를 틀면 3시간씩 앉아 있고」
 신경수: 「그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뭐」
 유중민: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자체도 어려운 일일 뿐더러 신형의 고민이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의 종말을 위해 노력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죠」
 신경수: 「과찬의 말씀을」
 유중민: 「그래 요즘 공부는 잘되요?」
 신경수: 「예 그런데 그게 관념 속에 맴돌고 있어서...」
 유중민: 「그렇죠! 그건 관념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실제의 문제죠」
 신경수: 「실제의 문제」
 유중민: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참으로 여러가지인 것 같아요」
 신경수: 「무슨 말씀이죠」
 유중민: 「나 가깝으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의 종말을 위해 이를테면 인간해방을 위해 다른 방법을 쓰겠단 얘기죠」
 신경수: 「다른 방법이라니요? 예를들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당간

다. 그러니 예수 믿으라! 이런식 말인가요?
 유중민: 「아니죠. 신형은 모든걸 종교에 결부시켜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거 같아요?」
 신경수: 「제가 그랬었나요?」
 유중민: 「예를 들자면 이런거죠. 환자의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고치듯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경수: 「당연한 말씀이네요!」
 유중민: 「이건 실환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아파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 다녔지요. 그래도 전혀 차도가 없거나 조금 낫은 듯 하다가 또 그렇곤 해서 주변의 말을 듣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의 원인은 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눈 뒤 어디에 혈이 맺혀서 그런 것이니 그것을 풀어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국의 유명한 안과 의사도 못고친 병이 거저말 같이 치료됐다는 이야깁니다」
 신경수: 「...」
 유중민: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거기에다만 처방을 하면 그 병은 결코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을 찾고 본질에 대한 치료를 해야만 완치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신경수: 「그럼 유선배님은 인간 고통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중민: 「글쎄요? 그건 신형 스스로 찾는 것이 좋겠죠. 역사 이래로 인류에게 종교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지금도 인류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전혀 치유가 되고 있지 않죠」
 신경수: 「그렇지만 ...」
 유중민: 「난 신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신형의 인간됨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겐 조금 충격적인 얘긴데요, 재차 묻지만 그럼 선배님은 치료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중민: 「혹시 칼 맑스의 자본론이나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책 읽어보셨습니까?」
 신경수: 「아뇨, 보지는 못했는데 들어 본 적은 있는것 같아요」
 유중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드릴텐데... 그걸 꼭 구해서 보세요. 아마 신형이 고민하는 것에 대한 거의 충분하고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9, 회상에서 돌아와 다시 창녀촌 경아의 방

경아 : 「뭘 그리 생각하세요」
 신경수: 「응? 경아야. 나 그만 갈게. 술 잘 마셨어」
 경아 : 「오늘도 그냥 가세요」
 신경수: 「그래 미안해. 꼭 또 올게. 그리고 경아를 사랑할 자신이 생기면 그 땐 꼭 안아줄게. 잘있어」
 경아 : 「안녕히 가세요! 꼭 또 오세...」

10, 당구장

광진 : 「야! 상철아 신도사 못봤나?」
 상철 : 「에 며칠전에 형하구 당구칠 때 보고 못봤는데요」
 광진 : 「그 자식이 혹시 ... 늦게 배운 도둑이 날새는 줄 모른다더니 애 또 거기 가서 아
 주 담구고 사는거 아냐?」
 상철 : 「에이, 도사형이 어디 그럴 사람이예요?」
 광진 : 「그렇지, 그런 놈이 아니지. 그럼 애가 어딜갔나? 또 훌쩍 짚에 들어 갔나?」
 「그 자식 참!」

11, 신경수 집

신경수 아버지: 「젠 며칠씩이나 방 구석에 처 박혀서 뭐하나?」
 신경수 어머니: 「개를 어떻게 알아요, 도 닦나보죠 뭐」
 신경수 방 안. 신경수 심각한 모습으로 책을 보고 있다
 책을 다 보고 덮는다 -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유물론
 멍하니 앉아 있다
 지문 : 『그 때에 비로소 나에겐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던 인간해방이라는 명제가 현실
 속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해탈하기 전까지 결
 코 해탈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지옥으로 가셨다는 지장보살의 염원이 지금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아타나야 하는가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머리 속에 여러 사람들의 모
 습이 떠 오르면서... 』

12,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어느 공장 안에 공원들 여럿이 밥 먹으러 간다.

종철 : 「야! 신도사」
 경수 : 「어! 형」
 종철 : 「밥 먹으러 가냐?」
 경수 : 「에 이거 때가 되면 순대를 채워야 하니 그나저나 그 도사란 말 좀 빨 수 없수?」
 종철 : 「그래? 그럼 뭐라고 부를까? 신가라고 부를까?」
 경수 : 「형은?」
 종철 : 「하하하하. 그건 그렇고 너 지금도 지장보살이냐?」
 경수 : 「지장보살? 참 오랫동안에 생각나는 단어네. (노동자를 가리키며) 형! 난 결코 저
 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야!」
 종철 : 「그럼 이젠 뭐냐?」
 경수 : 「글쎄... 밥 먹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종철 : 「그래 네 말대로 순대나 채우자」

[끝]

※서울손오공※

박 상 배

※제 1 화 삼장의 결심※

[장면 1]

삼장이 책상에 앉아 무척 고민을 한다.
 삼 장 ; 우와! 미치겠다.
 (책상을 가리키며) 요것도 끝이 있고
 (액자를 가리키며) 조것도 끝이 있고
 (턱을 피며) 세상에 모든것이 끝이 있는데...
 우주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으, 신경질나! (머리가 뻘친다)
 그렇지! (반짝이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럼 시작을 찾자! (책을 뒤진다)
 웬지 여기 있구나!
 {우주는 지금부터 150억년전에 태어났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점과 같았던 우주는 어느날 대폭발을 하여
 1/10초 사이에 급격하게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와 같은 형태
 를 갖추었다. }

이게 원소리냐?
 빅뱅? 1/10초? 대폭발? 팽창?
 ?

좋아! 어쨌든 시작이 있었던 말이지?
 (그리곤 생각한다)
 시작! 시작? 시작?
 그럼 그전엔 뭐였지?
 ○지, 아니면●거, 아니면□■거?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으앙~!
 푹 (그치고)
 그래 옛선인의 말씀중에 진리는 앉아서 탐구하는 것이 아
 니라고 그랬어.
 그렇다. 떠나자! 천하를 주유하며 나는 기필코 우주의 시작
 과 끝을 알아보리라!
 짹! (치마입고, 보따리메고, 썬글라스 끼고)
 부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대문 밖에서 인사한다.)

아버지 ; 그래 어딜가려 하느냐?
 삼 장 ; 소녀는 도를 얻기 위해 떠나려 합니다.
 어머니 ; 훌쩍, 훌쩍. 그래 부디 몸조심 하고...
 아버지 ; 그래, 도를 구하면 빨리 가지고 오도록 해라!

[장면 2]

남산타워의 모습과 남산이 보인다.
남산의 어느 숲속에 어떤도사(거지?)가 앉아 있고 손오공이
무릎꿇고 앉아 있다.

도사; 내 어제 천기를 보니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예구! 저저가면 동냥은 누가 하나.)
오공; 스승님! 그러면 스승님은 누가 모시고요? (아이구 지겹다,
지겨워)
도사; 그런건 걱정할것 없다. 어서 내려 가도록 하여라.
(그럼 있는것마저 너하구 나눠먹으란 말이냐?)
오공; 스승님 그럼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해방이다!!)
(오공이 스승을 떠나 남산 정상에서 서울시가지를 바라본다.)
으~음! 그동안 속세가 악으로 가득찼구나. 내가 내려가서
평정하리라.
그전에 먼저! (오공은 여자를 생각하면서 입맛을 췌 다신
다.)

[장면3]

서울역에서 삼장이 두리번거리며 망설인다.
삼장; 어디로 갈까? 이땅의 끝으로 가볼까?
아니면 미국가서 로켓타고 달나라 먼저?
(조금 멀리 떨어진 벽뒤에서 건장하고 불량하게 생긴 청
년들이 삼장을 가리키며 쭈근거린다. 한 청년이 삼장에게
다가간다.)
청년1; 이봐 아가씨! 갈곳이 마땅치 않은 모양인데 내가 끝내주는
데로 안내할까?
삼장; 끝? 끝나는데를 아시나요?
청년1; 그럼! 알다뿐이요! (이거 왜이리 쉽냐?)
삼장;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찾던중인데 지금 당장 갑시다.
청년1; 화끈해서 좋습니다. (이거 또라이 아냐?)
이리오시죠.
(청년이 삼장을 데리고 봉고로 간다.)
여기 타시죠!
(삼장이 타고보니 건장한 청년 세명이 타고 있다. 봉고가 어디론
가 간다.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껏속말을 한다.)
청년1; 재, 화끈하드라! 뜰들일것 없이 바로가자!
(껏속말을 들은 청년2가 삼장의 다리를 쳐다보며 음흉하게 웃는
다.)
청년2; 아가씨 피부가 참 곱군요! (입맛을 다신다)
삼장; 고마와요! 그런데 끝나는데가 어디예요?
청년2; 가보면 압니다.
(청년들이 남산 밑 으스스한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내리세요!"
하고, 삼장을 끌고 여관으로 간다.)

청년1; (여관을 가리키며) 바로 여깁니다.
삼장; 여긴 여관 아니예요?
청년1; 끝내 달라며? (내숭 떨고 있어?)
삼장; 내가 언제 끝내달랬어요? 끝을 안다기에 따라 왔죠! ?
청년2; 그게 그 얘기지. 이리와 (잡아끈다)
삼장; 왜 이래요! (반항한다)

제2화 만남

[장면4]

삼장이 반항하자 넷이 서로 쳐다보더니 번쩍 들고 가려고 하는데
무엇에 걸린다. 내려다보니 오공이 서있다.
청년1; 이진 뭐야?
임마 저리 비켜 시간없어. (미는데 꼬떡 않는다)
이자식이 비키라는데. (뒤통수를 후려친다)
오공; (피하면서) 내려봐!
청년1; 뭐...? 뭐라고?
오공; 내려봐!
청년들 서로 쳐다보며 어이없이 웃는다.
청년1; 오래 안살아도 별개다 속썩이네.
비켜 임마! (발길질을 한다.)
(오공이 슬쩍 피하면서 청년의 발을 잡아, 신을 벗기더니 손가락
으로 발바닥을 찍는다.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오공; 잠깐! (손을 들어 제지하며)
나, 이런 사람인데. (명함을 내민다)
(명함에는 『오공, 직업: 백수, 월수: 없음 이라고 써있음』
(청년들이 명함을 보더니 비웃는다.)
청년2; 우헤헤헤 손오공?
애가 당나라 얘기하네?
청년3; 별 단무지 같이 생긴 자식이 속 썩이네!
청년4; 야! 정말 세상 말세구나!
별개 다 명함 내밀구. (하면서 주먹을 휘두른다.)
(오공이 피한다.)
청년2; 야! 갠, 주먹으로 안 되겠더라. (각목을 들고온다)
이자식 맛좀봐라 야! (각목으로 내려친다)
퍽! (손오공은 밀짚히 서있고 각목이 부러졌다)
아주, 제법 돌대가린데!
(청년은 계속 각목을 꺼내서 내려친다)
퍽! 퍽! 퍽!
(오공이 밀짚히 서있고 계속 각목이 부러진다)
옴마! (청년들 놀란다)
(손오공이 청년들에게 다가가자 청년들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더
니 썩지가 빠져라하고 도망가는데 청년2가 뒷덜미를 잡힌다.)

오 공; 어딜가?
 청년2; 조기요! 조기 불일이 있어서...
 오 공; 예라! (손가락으로 코를 튕긴다) 텅!!
 (청년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자)
 입마! 손으로 튕겨도 아픈데 각목으로 치면 얼마나 아프겠
 니! 텅!!
 (청년이 코를 감싸고 도망간다)
 (오공이 돌아보니 삼장이 한쪽 구석에 서서 겁에 질리고 놀란표
 정을 하고 있다. 오공이 서서히 그쪽으로 다가간다. 백뮤직으로
 ~~우리~만남은~우연이~아니아...~)
 오 공; 남자! 어디 다친데는 읍슈?
 삼 장; 네, 괜찮은데...!
 오 공; 그럼. (오공이 돌아서 가려하자)
 삼 장; 잠깐만요! (오공이 돌아본다)

[장면5]
 다방안에 돌이 앉아 있다. 삼장다방에 앉아서 썬그라스를 벗는다.
 오공이 깜짝놀란다.
 오 공; 으잉! 스텐레스!
 삼 장; 인사가 늦었어요! 저는 장삼장이라 해요!
 오 공; 저...저는 손...오공이라 합니다.
 삼 장; 저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찾아나선 중이에요. 모든건 시작
 과 끝이 있는데 우주엔 그게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않아요?
 그래서 세상이던가엔 꼭 답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나
 선 중이에요!
 오 공; (심각하게 듣는척하며) 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군요!
 (아깝다. 얼굴은 예쁘게 맛이갔군!)
 삼 장; 어머 그래요? 반가와요! 지금까지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댁
 이 처음이에요!
 (돌대가리 같은데 네가 알긴 뭘 아냐?)
 오 공; 하, 하, 하! 세상수준이 아무래도...
 (처음일수 밖에. 세숫대야만한 스텐레스가 아니면 나도 당
 장 일어나겠다.)
 삼 장; 어머, 잘됐네요. 저랑 동행하시는게 어때요?
 (생긴건 밥맛이지만 경호원은 필요한게 아니겠어!)
 오 공; 예? 어딜? (이게 웬 떡이냐!)
 삼 장; 세상의 시작과 끝을 찾으려요!
 오 공; 그럼시다. 찌도 뭐, 가진건 시간밖에 읍는 사람인데!
 삼 장; (일어나며) 좋아요. 그럼 우리 당장 떠나요!
 오 공; (뒤로 돌아 혀를 낼름 내밀며) 바!보!

[끝]

※응급실이야기※

박 상 배

[장면1]
 퇴근시간 전철역사의 모습이 보인다 (동암역). 서울쪽에서 전동차
 하나가 도착하고 출입구가 열리자, 거의 텅비었던 플랫폼에 사람
 들이 짝차고, 올라가는 계단에는 거의 밀려가다시피 사람들이 올라
 간다. 주인공이 올라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듯이 바라보다 맨뒤로
 올라간다.
 빼곡이 사람들로 찬 출입구를 맨끝으로 통과하고 계단을 내려서
 는데 계단 아래에서 큰소리가 들린다. "1992년 10월에 예수
 님이 오십니다.", "지금 곧 교회로 가서서..." 내려다보니 중년의
 남자가 핸드마이크로 말하고 있다. 그 옆에는 피켓을 들고 서있
 는 아줌마, 처녀들의 모습도 보인다. 주인공이 내려가면서 생각한다.
 "불쌍한 사람들! 10월에 세상이 안 망하면 뭐라고 변명하려고
 저러지?"
 주인공이 다 내려와 그들옆을 지나가는데 한사람이 전도지 한장
 을 준다. 무심코 받아들여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 쓰레기통에 버린
 다. 쓰레기통에 전도지로 가득차 있다.

[장면2]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인네 돌이 밥을 먹고 있다.
 주인공; 다녀왔습니다.
 (영감은 들은체도 않고 할머니가 물어본다)
 할머니; 밥 먹었니?
 주인공; 예! 선영이네요?
 할머니; 지 엄마랑 병원에 갔다.
 주인공; 병원엔 왜요?
 노 인; (밥 먹다말고 갑자기 돌아서서 소리를 지른다)
 왜는 왜여! 아프니까 가지.
 주인공; (노인을 바라보지 않고 할머니에게 묻는다)
 갑자기 어디가 아프예요?
 노 인; 갑자기는 뭘 갑자기여! 니덜이 교회 안다니니까 벌받은거
 지!
 할머니; (아무말도 하지말라는 듯 눈을 끄적끔적하며)
 응급실에 있으니 어서 가봐라!

[장면3]
 병원의 십자가가 보이고 1층에 응급실 간판이 보인다. 응급실
 안에 빈침대가 3개 있고 나머지는 환자들이 누워있고 그옆에
 보호자들이 앉아있다.
 한쪽에 주인공과 치가 침대에 누워 낱줄을 꿸고 있는 어린아이
 (3살. 여) 손을 잡고 있다.

주인공; 갑자기 어디가 아픈거야?

처 ; 모르겠어요. 갑자기 토해서 약을 먹었더니 약까지 토해요!

주인공; 병원에선 뭐래?

처 ; X-Ray 찍어봤는데 위에 가스가 차서 일단 가스부터 빼야겠대요!

주인공; 그럼 제한건데 빌하고 병원에 와? 한약방에 가야지!

처 ; 지금시간에 한약방 문연테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당신 부모가 보통극성이예요?

(그때 응급실에 코피를 흘리는 사람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다. 간호원이 그 환자를 아이 옆의 비어있는 침대에 눕힌다. 간호원이 가자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엄마에게 말을 한다.)

환 자; 아! 이런 경우도 있쥬?

글씨 지가 우회전 할라고 그러는디, 그놈의 자가용이 확 튀어나오지 않겠쥬?

그래서 (입맛을 썩 다시다)

(의사와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온다)

간호사; 누우세요!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환 자; 아, 선생님! 그래서 지가 욕을 한마디 했더니 내려서 다짜고짜 치지 않겠쥬!

시상엔 법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감유?

의 사; (얕힌채 치료하며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에~?

환 자; 지도 배울만큼 배웠고, 알지는 아는 사람인데, 이젠 법대로 해도 경우가 틀린거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경찰한명이 들어와 간호사에게 누군가를 찾는다. 간호사가 환자쪽을 가리키고 경찰이 다가온다)

경 찰; 실례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의 사; (경찰관을 쳐다본다)

입술이 좀 찌지고 코피가 터졌습니다.

경 찰;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의 사; (환자의 입술을 조금 벌려 보더니)

에! 가도 좋습니다.

경 찰; (환자에게) 잠깐 좀 감시다.

환 자; (침대에서 내려와 경찰을 따라가며 의사에게 계속 말을 한다) 지가유, 비록 체소장사는 허고 있지만, 고종사촌 동생이 큰교회 목사구유, 작은 사둔이 파출소 소장이유, 지두 겁나는거 하나두 읍쥬!

(환자와 경찰이 나가자 병원이 조용해진다)

주인공; (처에게 말하며) 담배한대 피고 울께.

[장면 4]

응급실 밖의 병원 복도에 긴의자가 여러개 놓여 있고, 주인공이

그중 한군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옆의자에 중년쯤 돼보이는 조금 폰수같은 아줌마가 앉아있다. 갑자기 복도 저쪽에서 침대에 실려 중환자인듯한 모습의 환자가 실러오고 환자의 어머니쯤 돼보이는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사색이 되어 따라온다.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가자 노인은 응급실문 앞에 철퍼덕 주저앉아 동곡을 한다.

“아이고! 내아들좀 살려줘유! 내아들좀 살려줘유!”

포장마차고 뛰고 다 필요 없응게, 내아들좀 살려줘유!” 복도쪽에서 목사인듯한 사람이 성경을 손에 끼고 아줌마 두사람과 노인 곁으로 온다. 잘 아는 사람인듯하다.

목 사; 집사님! 진정하세요!

아줌마 1; 그래요 집사님. 괜찮을거예요.

아줌마 2; 집사님 하나님만 믿으세요!

‘네가 원하면 능치 않을일이 없으리라’ 했으니, 아드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실거예요.

목 사; 집사님!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거예요! 이리오세요 (노인을 의자에 앉힌후 목사가 곁에 앉고 아줌마 둘은 노인 앞에 선다)

목 사; 우리 기도 드립시다. (고개를 숙인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주인공; (바라보며 뭔가 생각한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난다)

목 사; 집사님 저랑 같이 들어가 봅시다.

(노인과 목사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아줌마 둘이 의자에 앉아 애기한다)

아줌마 1; 에구 저 집사님 불쌍해서 어떤데요?

아줌마 2; 그러게 말예요!

단속도 좋지만, 그거하나 만들어서 노인네 모시며 어렵게 풀칠하는걸 뺏아갔으니……

아줌마 1; 그나저나 살기는 살겠어요?

아줌마 2; 모르쥬! 위세척을 했더니까 경과를 봐야 한대요!

살아도 그렇지. 두식구가 인제 뭘 먹고 살아요?

아줌마 1; 그러게요? …

(주인공 옆 의자에 앉아있던 폰수같은 아줌마가 끼어든다)

폰 수; 약을 먹었나 보쥬?

아줌마 1, 2; (쳐다보고 귀찮은 듯 대답한다) 에! 그랬대요!

(주인공은 응급실로 들어간다. 아까 들어왔던 환자 곁에 목사와 노인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 주인공이 처 옆에 가서 앉는다.)

주인공; 저기 있는사람! (가리키며)

포장마차 뺏기고 약먹었대!

처 ; 어머, 어쩔 . 불쌍해서 어떻게?!

주인공; 그러게 말이다.

처 ; (그 환자쪽을 돌아다 본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눈감고 고개숙이고 기도하는것 같은 행동을 한다)